

한교총, 차별금지법·정교유착 방지법안 재고 촉구

“정통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사진>, 이하 한교총)은 2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 방지 관련 법안이 자칫 정통교회의 신앙 활동과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교총은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입법 시도가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정통교회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 제재는 법치 국가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이 차별금지법이나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결합될 경우, 사이바이단 종교를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정통교회의 정당한 신앙 표현과 교리적 비판마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교총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이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통교회가 사이바이단 종교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적 행태를 지적하고 경계하는 행위조차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으로 규정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교총은 “이러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정통교회의 정당한 비판과 경고마저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사이바이단 종교의 흑세무민을 막기보다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 온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교총은 최근 유엔총회가 장애인 권리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SOGI)” 문구를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입법 시도가 국제적 논의 흐름과도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 어린이 사역에 다시 부흥을”

박연훈 목사,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 16대 대표회장 취임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이하 한어협)가 2일 인천광역시 송도주예수교회(담임 신바울 목사)에서 제16대 대표회장 아취임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임시총회, 제2부 대표회장 아취임 감사예배, 제3부 아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임시총회는 박연훈 목사(16대 대표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회칙 수정과 수석부회장 선출, 다음세대 사역 관련 안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대표회장 아취임 감사예배는 김태성 목사(13대 대표회장)가 인도했으며, 경배와 찬송 후 최현민 목사(12대 대표회장·사랑의빛교회 담임)가 기도를 맡았다.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북한의 박해 현주소(2) >> 7면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 2로 돌아오다 >> 23면

이날 정태성 목사(사무총장)가 여호수아 18장 3-6절을 봉독했다.

SB목찬양단의 특별찬양 후 말씀을 전한 신상범 목사는 “오늘날 다음세대를 ‘다른 세대’라 부를만큼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다음세대가 쇠퇴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런 비상시기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어협 임원들과 회원들을 어린이 사역을 위해 보내셨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그림을 그려 오라고 하신다”며 “어떻게 사역하고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오늘 취임하시는 대표회장님께서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신 목사는 “여러분에게 어린이 사역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며 “어린이들과 한국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 번 이 땅에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여인달 목사(14대 대표회장)가 헌금기도를 드렸다. 제3부 아취임식에서는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 제16대 신임 대표회장인 박연훈 목사가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우선 직전 대표회장 홍순길 목사(좋은교회 담임)가 임임사를 전했다. 홍 목사는 “이 시대,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며 “박연훈 신임 대표회장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무너진 이 시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신임 대표회장 박연훈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다. 박 신임 대표회장은 “앞으로 다음세대 사역자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 어린이·청소년 사역자들을 길러내

려 한다”며 “또한 작은 교회들을 위한 어린이 부흥회도 무료로 가져려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 어린이 사역에 다시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권면한 신바울 목사(송도주예수교회 담임)는 “한어협이 다니엘과 같은 다음세대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 믿는다. 개혁과 변화를 통해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기대한다”며 “이 일에 박연훈 신임 대표회장님을 귀하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 제16대 대표회장 아취임감사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게 사용하실 줄 믿는다”고 했다.

김석년 목사(한섬공동체)는 비사면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위기의 시대에 길을 여는 것은 항상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부름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이라며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 사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는 최병현 목사(감리교전국부흥단 37대 대표단장 역임)와 김덕신 목사(에스라선교연구원 원장)가 맡았다. 이후 광고

와 내외빈 소개, 참석자들이 찬송에 이어 조종제 목사(6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한편, 한어협은 어린이 복음화와 다음세대 부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국 교회와 협력해 어린이 집회와 사역자 훈련, 말씀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표회장 취임을 계기로 어린이 부흥 사역의 네트워크 강화와 현장 중심 사역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협회 측은 전했다. 김진영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에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원코리아법국민연대 출범… 범시민사회 연대로 통일 한반도 비전 제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미래, 하나의 대한민국’ 기치로 분단 극복 나서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원코리아법국민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출범식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출범은 분단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다뤄온 기존 접근을 넘어, 분단을 끝내야 할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됐다.

원코리아법국민연대는 ‘하나의 민족, 하

나의 미래, 하나의 대한민국’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분단 현실을 고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머무르지 않고, 통일을 향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의 실천을 시민의 영역에서 확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연대 측은 통일을 선택이나 정책 옵션의 하나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연대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연대의 공동 상임대표에는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 한국NGO연합 이화범 상임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 뉴코리아파운데이션인터내셔널 케네스 배 대표, 통일을실현하는사람들 서인택 공동상임의장,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가 참여했다. 시민사회, 인권, 통일운동, 북한 인권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폭넓은 사회적 기반과 상징성을 갖춘 연대체로 출범하게 됐다.

출범식에는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를 비롯해 뉴코리아파운데이션인터내셔널, 한국NGO연합 등 시민사회인권청년탈북민·통일운동 분야에서 활동해온 46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경석 목사(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와 김가영 탈북 청년 유튜버 등도 자리를 함께해 연대 출범의 의미를 공유할 계획이다.

출범식 행사는 장만순 상임공동대표의 추진 경과 및 핵심 비전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김천식 제19대 통일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 한반도를 둘러

싼 시대적 과제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김태훈 (사)북한인권 이사장, 김진홍 두레고 회 목사가 축사에 나서 원코리아법국민연대 출범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장만순 상임공동대표는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두 국가론’에 대해 분단을 제도화할 위험이 있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역사 앞에서 한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 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은 헌법 이전의 역

사적 책임이며, 분단 속에서 고통받은 북한 동포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점을 창설 취지로 밝혔다.

한편 원코리아법국민연대 출범을 계기로 시민이 주도하는 대북방송 ‘코리아링크’의 창립 캠페인도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캠페인은 통일방송을 위한 글로벌 모금 캠페인과 연계해 전개될 계획이다. 연대 측은 이를 통해 국내외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일 한반도를 향한 공론 형성과 실질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승연 기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방한… 정부·시민사회 면담 및 기자회견 예정

북한 인권 실태 점검 위한 공식 방한, 2~6일 일정으로 서울서 주요 일정 소화

외교부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공식 방한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살몬 특별보고관은 외교부를 비롯해 통일부, 법무부 등 관

계 부처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정부 부처와의 만남에서는 북한 인권 현안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 한국 정부의 관련 정책과 입장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서는 김진아 제2차관이 2일 살몬 특별보고관을 접견해 북한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의 방한 일정에는 시민사회와의 교류도 포함됐다. 그는 국내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평가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면담을 통해 국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인식과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진행한 면담과 논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유엔 차원의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제사회와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리로 마련됐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해당 직책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 가

운데 하나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다.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네 번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지난 2022년 8월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방한은 임무 개시 이후 세 번째 공식 방한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이번 방문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용국 기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노형구 기자

박영선 목사 “손가락질 아닌 끌어안는 신앙으로”

마지막 설교 전회



남포교회 원로인 박영선 목사(사진)가 주일예배 강단에서 사실상 마지막 설교를 전하며, 신앙의 성숙과 용서, 그리고 십자가 신앙의 본질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1일 주일예배에서 욥기 42장을 중심으로 설교하며,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겪는 상처에 대한 성경도 함께 밝혔다.

설교에 앞서 박 목사는 예배에 모인 성도들에게 당부를 전했다. 그는 “교회 안팎에서 제 이름을 둘러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오히려 오해를 키우는 상황이 되면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들로 예배의 자리가 무거워지고, 교회를 떠나려는 이들에게 생기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짐을 나누어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공동체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교에서 박 목사는 욥기의 결론부를 짚으며,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다음 단계’를 언

급했다. 그는 “욥이 고백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더 많이 알게 됐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귀로 듣던 신앙을 넘어, 한순간에 전체를 직면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욥은 당대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던져졌다”며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공감보다 판단을 앞세웠고, 욥은 그 시선 앞에서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꾸짖으신 대상은 욥이 아니라, 욥을 재단하던 친구들이었다”고 했다.

특히 “하나님은 욥을 놀려버리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며 “그를 심문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들어라’며 허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아버지로 등장하신다”고 풀어냈다.

박 목사는 “인류는 늘 정의를 외치며 부패한 권력을 뒤집어 왔지만, 그 끝은 또 다른 폭력으로 귀결되기 일쑤였다”며 “힘으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드러내신다”고 말했다.

욥기 42장에 이르러 욥이 침묵과 항복으로 나아가는 장면에서 박 목사는 “욥은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답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소원조차 분명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르쳐 달라’고 묻는 자리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목사는 “친구들은 규칙과 권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로 질문했다”며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응답은 ‘용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분노를 정리한 뒤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서해라. 용서는 틀린 사람 정죄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틀린 사람 용서하고 화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사랑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으면 보상을 주겠다는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결단을 선포한 문장”이라고 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라며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판단의 자리보다 용서의 자리, 고발의 자리보다 품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안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다. 노형구 기자

손현보 목사, 출소 후 첫 주일설교…

“잘못된 정치 행태 비판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손현보 목사(사진)가 출소 후 처음

맞은 1일 세계교회협의회 주일예배에서 누가복음 18장 9-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설교한 저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며 “저는 이재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처럼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줄탄핵을 일삼으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문턱이 있는 자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정승윤 예비후보와 대담을 진행했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오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초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선고와 함께 출소했다. 손 목사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손 목사가 ‘제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데 따른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일부 미국 및 국제사회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안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박해로 바라보는 시각이 제기된 바 있다. 노형구 기자

B E Y O N D
ENTERTAINMEN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한국교회, 이제는 질적 성장의 리더십 필요하다”

[저자 인터뷰] 『7Q 셀프 리더십의 톱날을 갈아라』 홍영기 목사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에 리더십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리더십선교회(GLIM) 대표 홍영기 목사가 『7Q 셀프 리더십의 톱날을 갈아라』를 출간했다.

홍 목사는 30년 넘는 목회와 선교,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아웃에 시달리는 리더들의 현실을 진단하며 영성부터 체력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셀프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의 질적 성장은 물론, 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K-리더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7Q 셀프 리더십의 톱날을 갈아라”를 출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제가 30년 이상 목회와 선교, 그리고 교수와 연구소 소장으로서의 사역을 해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이 있다. 바로 리더십의 중요성이다. 미국에서 약 10년간 목회했고, 귀국 후에는 개척 목회도 3년 가까이 했다. 한국교회는 이제 양적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질적 성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결국 교회의 미래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저는 옥스포드

선교대학원(OCMS) 박사과정에서 카리스마 리더십을 연구했고, 2001년에는 『한국 초대형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 책 출간으로 MBC 라디오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리더십 관련 책을 여러 권 집필해 왔고, 그 모든 연구를 전인적 리더십으로 정리한 결과로 바로 이 책이다.”

— 이 책은 반아웃을 겪는 리더들을 위한 지침서라고 소개하셨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가?

“사역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다. 반아웃은 열정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열정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온다. 문제는 방향과 자기관리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도 말년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설교와 사역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계발에 더 시간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대한 사역자들도 반아웃을 경험하며 재점검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일 뿐 아니라 정서적·지적·사회적·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자기 점검과 방향 설정, 이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이다.”

— 이 책이 모델로 삼고 있는 대표적 리더는 누구인가?

“대표적인 모델은 조용기 목사님이다.



홍영기 목사. ©노형구 기자

크리스천 리더십의 근원은 영성이다.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천 리더십은 영성을 갖춘 리더십이다. 그런 점에서 조 목사님은 영성이 탁월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 없이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또한 긍정성의 모델이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절대 긍정의 신앙이다.

지성적인 면에서도 학벌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독서하고, 영어를 공부하며 자기 계발을 하셨다. 그가 세계적인 설교가가 된 것이 바로 탁월한 영어 실력 때문이다. 인성 면에서도 매우 겸손하셨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교만과 싸우셨던 분이다. 대인관계, 전문성, 그리고 체력 관리까지 철저하셨다. 이런 점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전인적 리더십의 대표적 모델이다. 성경에서도 살펴보면 요셉이 좋은 모델이다. 그는 꿈과 비전, 긍정성, 자기계발, 사람을 돌보는 마음, 전문성과 균형 있는 삶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 책에서 말하는 ‘7Q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첫째는 영성(SQ)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 곧 하나님의 생각, 믿음, 꿈,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함양되는 것들이다. 둘째는 긍정(PQ)이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일에 대한 긍정, 환경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긍정 등 긍정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감사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는 지성(IQ)이다. 하나님은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지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평생 독서를 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목사로서

신학뿐 아니라 사회학, 철학, 역사, 정치학, 통계, 블록체인까지 공부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는 지금 요셉, 노회야, 다니엘과 같은 크리스천 정치인이 필요하다.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로서, 기업인으로서, 교사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실력 있고 영성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태도도 지성을 기르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다.

넷째는 인성(CQ)이다. 설교나 은사가 탁월해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성품에 실망해 사람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인격 계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함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13가지 덕목을 정해 늘 자신을 점검하며 실천했다. 크리스천들도 사랑, 화락, 화평, 은유, 자비, 양심, 충성, 절제, 겸손 등 성령의 아홉 가지 덕목을 늘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인성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사람이 넘어져 봐야 아는 것이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과 모세,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바울의 공통점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과 바울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다. 이는 인간의 허물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거짓말을 성경에 썼겠는가. 그는 사도 중에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죄인 중에 고수라고 말했다.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간다.

다섯째는 사회성(NQ)이다. 대인관계는 훈련이다. 말하는 법, 듣는 법, 존중과 공

감은 배워야 한다. 목회자들도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필요를 모르고, 친절과 존중을 실천하지 못하면 목회자도 교만해지기 쉽다. 그 결과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말하는 법, 듣는 법, 사람을 향한 관심과 존중을 계속 공부해야 한다.

여섯째는 EQ(전문성 지수)다. 소명과 함께 실력이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은 탁월해야 한다. 탁월함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어느 분야에서든 크리스천은 탁월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일곱째는 BQ(체력 지수)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체력 관리는 청지기의 책임이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평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

— 이 책은 실제 적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셨다.

“이 책은 실천을 위해 부록에 각 영역별 실천 루틴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이미 별도의 훈련 교재 『7Q 셀프리더십 루틴 다이어리』 등도 출간했다. 일주일 단위로 7Q 영역에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이를 통해 리더십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적용에 큰 도움이 된다. 또 3월 부터는 ‘7Q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책과 아카데미 등 이러한 통합 모델은 교회뿐 아니라 개인, 가정, 기업, 조직, 사회 전체에 적용이 가능한 ‘리더십 플랫폼’이자 인생 운영체제라고 본다.”

— 이 책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목회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교회 평신도 리더, 직장인, 기업인, 사회 각 분야의 크리스천 리더 모두에게 해당된다.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7Q를 중심으로 자기 진단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기준과 프레임이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한다.”

— 저자는 “리더십은 특별한 순간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루 속에 반복되는 루틴에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리더십은 훈련이다. 즉 루틴의 훈련이다. 운동선수들도 재능이 있어도 얼마나 연습하는지는 잘 주목하지 않는다.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김연아도 그렇다. 남들보다 잘하지만 늘 연습한다. 바둑도 마찬가지다. 신진서나 이세돌 같은 바둑기사들도 매일 바둑을 연구하고 연습한다. 리더십도 동일하다. 7Q를 루틴으로 매일 훈련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 역시 성공과 실패, 고난을 모두 경험했다. 그래서 리더십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7Q 셀프 리더십은 한국교회를 넘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K-리더십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목사이자 리더십 전문가로서, 교회와 조직, 사회를 섬기는 플랫폼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 싶다.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국 자기계발, 셀프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나 역시 성공과 실패, 고난과 경험을 모두 거쳤다. 그래서 리더십의 균형,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7Q라는 모델을 통해 자기계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7Q가 K-리더십이 되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존 맥스웰은 목사이면서도 리더십 전문가였다. 그가 나에게 하나의 모델이 됐다. 나 역시 목사이지만, 리더십 코치이자 전문가로서 교회뿐 아니라 회사와 조직,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십 플랫폼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

노형구 기자

‘AI 시대, 설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콘퍼런스 열린다

2월 26일 선한목자교회에서

‘AI 시대, 설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라는 주제로 오는 2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 6층 글로리홀에서 ‘패스웨이 설교 콘퍼런스’가 열린다.

이 콘퍼런스에선 신성욱 교수(아신대 설교학)가 ‘AI, 차별화된 설교의 해결책일까?’,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가 ‘AI 시대의 기회와 위험, 성육신

적 설교를 회복하라’,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가 ‘AI가 만들 수 없는 이야기’, 이정규 목사(시광교회)가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설교-기술적 영역의 설교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콘퍼런스는 바이블신드롬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선한목자교회가 주관하며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시광교회, 니르크리스천리더십연구소가 협력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목사, 전도사, 신학생)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 콘퍼런스의 등록비는 1만 원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점심식사와 핸드북, 설교집을 제공한다. 김진영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KSP 한국동서발전주

인도 기독교 박해, 세계감시목록 순위 하락에도 여전한 위기

세계감시목록 12위로 한 단계 내려갔지만, 박해 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 기록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가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한 단계 하락했지만, 현지 기독교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세계감시목록(WWL) 2026’에 따르면, 인도는 전년도 11위에서 12위로 내려갔으나 박해 종합 점수는 84점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는 인도의 순위 변화가 상황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박해 상황이 더욱 악화된 데 따른 상대적 변동이라는 분석이다. 오픈도어는 세계감시목록이 국가 간 상대 비교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순위 하락이 곧바로 박해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도의 박해 강도는 여러 지표에서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지수 역대 최고차… 기독교인 구금체포 세계 최다 기록** 이번 보고서에서 인도의 폭력 점수는 16.7점 만점에 16.1점을 기록하며, 오픈도어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인도는 조사 기간 동안 기독교인 구금과 체포 건수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보고 기간 동안 1,622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거나 재판 없이 구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생활 영역에서의 박해 점수 역시 15.1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 5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법제도와

사회 전반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광범위하게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인도 내 기독교 박해를 감시해 온 현지 단체들도 유사한 평가를 내놓았다. 인도복음주의연맹(EFI) 종교자유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최소 920건의 기독교인 대상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일 연도로는 역대 최다 수치라고 밝혔다. 인도기독교연합포럼(UCF) 역시 2024년에만 834건의 사건을 집계했다. UCF는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비 조사 결과 박해와 폭력이 더욱 조직화되고 위험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혐오 발언의 급증과 함께 기독교인을 겨냥한 집단적 공격

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계감시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괴롭힘 사례는 전년도 대비 69% 증가했다. 이전 조사 기간 13건이었던 관련 사례는 22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은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개종법 남용, 박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 기독교 지도자들은 최근 인도 내 박해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법적 압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주) 정부 차원에서 제정강화되고 있는 반개종법이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라자스탄주는 반개종법을 제정한 12번째 주가 됐다. 해당 법률들은 개종의 강요나 사기를 금지한다는 명분 아래,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거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독교 선교와 종교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기독교인 부부가 반개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최대 종신



보고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인도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가 정부로 하여금 소수 종교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사회적 적대감과 혐오 발언의 확산이 박해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집회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되는 혐오 표현이 교회 공격과 예배 방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순위 하락의 배경… 타국 박해 악화에 따른 상대적 변화** 인도의 순위 하락에는 일부 폭력 지표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교회 공격이나 폐쇄 사례는 전년도 459건에서 82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마니푸르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강제 이주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오픈도어는 폭력의 성격이 변화했을 뿐, 박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시리아 등 일부 국가의 박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며 순위 상위권에 새로 진입한 것도 인도의 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인도의 상황이 개선돼 순위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현실”** 기독교 인권 활동가들과 지도자들은 세계감시목록 순위를 근거로 인도의 상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해가 일상화되고 행정사법 절차 속에 내재화될수록 외부에서는 덜 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에는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가 통계와 순위뿐 아니라 현지 모니터링 결과와 피해자들의 증언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가 여전히 ‘극심한 박해’ 국가군에 포함돼 있는 만큼, 종교 자유와 시민권 보호를 위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승연 기자

남수단 난민캠프서 기독교 개종 갈등 확산

무슬림 가정 반발 속 난민캠프 교회 지도자 체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남수단 내 수단 난민캠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10대 여성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며, 현지 교회 목회자가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남수단 아종족(Ajoang Thok) 난민캠프에서 활동 중인 글로리 침례교회 소속 조셉 사위시 목사가 무슬림 가정의 고발로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됐으며, 현재까지 공식 기소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이하 현지시각)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아모나 이브라힘 카키의 오빠 하산 이브라힘 카키가 난민캠프 경찰서를 찾아 조셉 사위시 목사를 강제로 데려가 납치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위시 목사를 구금 중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기독교로 개종한 18세 여성, 가족에 의해 추방** 아모나 카키는 수단 누바산맥 지역 출신 난민으로, 남수단 아종족 난민캠프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는 약 2년 전 우연히 발견한 성경을 읽기 시작한 뒤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모나 카키는 지난 1월 8일 가족으로부터 신앙 문제를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 이후 난민캠프 내 다른 가정에 잠시 머물렀으나,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캠프 외부에 있는 교회 지도자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의 무슬림 가족은 교회 측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아모나의 귀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회자가 개종시켰다”며 구금 장기화** CDI는 아모나의 가족이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배후에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며, 목회자가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은 가족 측이 “목회자가 여성을 개종시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회자 석방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아모나를 가족에게 돌려보낼 경우 심각한 폭력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한 교회 지도자는 “가족의 반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돌려보낼 수 없다”며 “아직 매우 어린 나이이고, 생명의 위협이 분명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으로 돌아가면 죽임당할 수 있다”는 당사자 증언** 아모나 카키는 가족에게 돌아갈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족 중 어머니가 돌을 들고 쫓아냈으며, 오빠가 ‘한 집에 함께 살 수 없고, 돌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오빠가 살아 있는 한 자신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모나는 오빠가 외출한 사이 그의 방에서 성경을 발견했고, 공부를 위해 사용하던 방에서 매일 성경을 몰래 읽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됐다고 느끼면서 신앙을 받아들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12월 25일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신앙을 공개했다. 이후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무슬림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에 개입을 요청하며, 종교적 이유로 위협받는 난민에 대한 보호와 재정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동아프리카 지역 교회들은 난민캠프 내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수단의 종교 환경과 국제 지표** 수단은 인구의 약 93%가 무슬람이며, 기독교인은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국 순위(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수단은 기독교인이 살기 어려운 국가 50개국 중 4위에 올랐다. 수단은 2021년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종교 박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수단에서 분쟁을 피해 남수단 국경으로 대피한 피난민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이승찬 선교사, 캄보디아 전국유도선수권 성과 이끌어

캄보디아 2026 전국유도선수권대회가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프놈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캄보디아 국가대표 주축인 왕립군 소속 선수들이 전원 메달을 획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결과 뒤에는 캄보디아 유도연맹 코치로 활동 중인 이승찬 선교사의 지속적인 지도와 훈련이 있었다. 이 선교사는 국가대표와 왕립군, 올림픽 후보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정과 체계적인 훈련을 이어오며 전반적인 경기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왕립군 유도팀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은 세밀한 기술 지도와 엄격한 훈련,



선수들과 함께 ©이승찬 선교사

그리고 선수들을 향한 꾸준한 격려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승찬 선교사는 “복음은 말보다 삶과

몸으로 전해진다”며 “유도를 통해 선수들과 시간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형구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뉴욕교회, 다니엘서 강해로 불확실성의 시대 속 신앙의 방향 제시

김성기 목사 “흔들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는 신앙으로”

뉴욕교회 담임 김성기 목사가 1월 들어 주일예배에서 다니엘서를 강해하며,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지키는 결단’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

김 목사는 1월 4일 주일예배에서 다니엘 1장 1~21절을 본문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뜻을 정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오늘의 시대를 ‘나침반이 고장 난 채 울창한 숲을 걷는 것 같은 시대’라고 진단하며 “경제·지정학·사회·전리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안전하게 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상황을 ‘불확실성의 한복판’으로 짚었다. 그는 “유다는 성전이 있으니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셨다”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근심히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벨론이 포로 소년들을 향해 펼친 ‘바벨론화 전략’

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김 목사는 “첫째는 학문과 언어를 통한 세뇌 교육, 둘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길들이는 생활환경 변화, 셋째는 이름을 바꿔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름에서 하나님을 지워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부르게 한 것은 정체성 말살”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녀 신앙교육을 언급하며 “우리는 아이들을 한국화해서도, 미국화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성경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은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생활방식을 가르치며 아이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우려 한다”며 “우리는 가치관의 전쟁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다니엘 1장 8절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신앙을 지탱한 핵심을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한 것”이라며



뉴욕교회 담임 김성기 목사 ©교회 측 제공

“왕의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바벨론화에 동의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다니엘은 순결을 지키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돕고 복 주신다”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결국 믿음을 지킬 길을 여셨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일예배에서 김 목사는 다니엘

2장 말씀을 통해 ‘위기의 시대 속에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을 설명하며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계획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왕은 분노로 칼을 휘두르고 지혜자들은 살기 위해 꾀를 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새해 계획을 세울 때도 사람의 지혜나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묻

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여준 태도에 주목했다. 그는 “다니엘은 왕 앞에서 시간을 달라며 담대히 나아갔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다”며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있다. 위기의 때에 앞도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며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나타내셨고, 다니엘은 응답 후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송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두 가지를 경계했다. 그는 “아려울수록 예배를 끊는 것이 가장 아리석은 행동”이라며 “어떤 일을 만나도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기도를 끊는 것”이라며 “사람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고민하지만 정작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며 능력을 베푸신다”고 강조했다. 1월 18일 주일예배에서 김 목사는 다니

엘 2장 24~49절을 본문으로, 앞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자리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다니엘이 왕 앞에서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장면에 주목했다.

김 목사는 느부갓네살이 본 거대한 신앙의 환상을 해석하며, 금은·옷·쇠로 상징되는 세상 제국의 역사는 흥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처럼 찬란해 보이는 나라라도 결국은 무너진다”며 “세상 나라는 망하고 또 망하는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손대지 아니할 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며 “성도가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원 기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AI 설교 연구소’ 설립, 첫 컨퍼런스 개최

세상을 섬기는 설교와 AI’ 주제로

3월 10일 CPU 캠퍼스 9시~3시 30분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CPU, 총장 이상명)가 ‘AI 설교 연구소’를 공식 출범하고, 오는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첫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AI 설교 연구소는 “AI를 활용하여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설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실천적 혁신을 연구·훈련·확산하는 글로벌 허브”를 비전으로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릴리 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연구, 교육, 미디어 세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첫 컨퍼런스는 “세상을 섬기는 설교와 AI (Preaching for SG: Social Good and Serving God)”를 주제로 3월 10일 CPU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오전에는 풀러신학대학원 김창환 학장(Dr. Sebastian C. H. Kim)이 “설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혜서 연구”를, 플러튼 교육국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원 라이프 시티 교

회(One Life City Church)의 엘리엇 정(Elliott Chung)목사와 제이 유(Jay Wu)목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설교와 영적 형성 사례”를 주제로 강의한다.

오후에는 20년간 대기업과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조요셉 박사(Dr. Joseph Cho, LC Lab CEO)가 “설교자를 위한 AI 기초와 귀납적 성경연구 AI 소개”를 강의하며, 이세영 박사(미주복음방송 부사장, AI 설교연구소장)가 “AI for SG” 강의를 이끈다.

이번 컨퍼런스는 목회자, 신학생, 미디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비는 무료이고 점심이 제공된다. 현장 참석은 좌석이 한정되어 선착순 50명에 한하며, 이후 신청자에게는 온라인 중계 링크가 제공된다.

AI 설교 연구소는 미주복음방송과 협력해 ‘동행과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중 컨퍼런스와 설교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방



송 제작 및 송출 지원, 설교자 네트워크 연결 등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3월 10일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4월에는 청년사역자 설교와 목회 멘토링 세미나, 5월에는 설교자를 위한 영상과 AI 아카데미를 이끈다.

이상명 CPU 총장은 “본 연구소를 통해 AI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 뿐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퍼스널 설교 코칭과 클리닉의 도구까지 나아가는 혁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공동대표로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송병주 목사(선한 청지기교회 담임)는 “AI 시대, 목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설교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 연구소가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선 사장(미주복음방송)은 “AI가

가져올 방송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사역의 현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연구와 컨퍼런스로 목회자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AI Preaching Institute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역을 전개한다:

NextGen Preaching Forum - 설교 세미나 시리즈(연 2~4회), 12주 집중 멘토링 프로그램, 연례 컨퍼런스를 통해 다음 세대 설교자를 양성한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 존경받는 멘토 목사들과의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목회와 설교에 대한 퍼스널 케어를 제공한다.

Preaching Clinic Lab (PCL) - 전문 촬영, 편집, AI 기반 설교 분석, 맞춤형 코칭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교 클리닉이다. 음성, 표정, 제스처, 설교 구조 등을 AI로 분석하여 설교자 역량 강화를 돕는다. AI 아바타 다국어 설교 시스템 - 한 명의 설교자가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혁신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어 장벽을 넘어 글로벌 청중에게 복음을 전달한다. 김민선 기자

효신장로교회, 2026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개최

‘Next Step, Nest Church’ 비전 나뉨

효신장로교회가 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2026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열고 새해의 영적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지난 주일 드린 신년감사예배에 이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진 이번 특례는 성도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김광선 담임목사(사진)는 사무열상 강해에 앞서 그 배경이 되는 사기를 ‘프리퀀(Prequel)’ 형식으로 풀어내며, 총 6편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혼란과 반복의 시대를 살았던 사사기의 역사를 짚으며, 다음 세대를 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교회의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Next Step, Nest Church’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회가 머무는 공간을 넘어 다음 세대를 품는 동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나눴다. 이번 특례 기간에는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순서도 마련됐다. 목요일에는 특새 안례로 선진 청년공동체를 위해 따뜻한 토스트를 준비해 감사를 전했고, 금요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강단으로 초청해 함께 예배하며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확인했다. 토요일에는 자녀 강단 축복기도 시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특별새벽기도회의 출석 인증 선물로 준비된 ‘지자스C’도 눈길을 끌었다. 지자스C는 박카스에 복음적 메시지를 담은 라벨을 부착해 제작한 것으로,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며 특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성도들은 이를 이웃과 나누거나 사 진으로 남겨 SNS에 공유하는 등 은혜를 일상 속에서 확장해 나갔다.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한 주간의 감동을 축제로 마무리했다. 새벽마다 쌓인 기도의 시간이 공동체의 교제로 이어지며, 신년특새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김대원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은혜제일교회, 2026 신년음악회 열려… 전 세대 아우른 ‘희망의 선물’

31일 김정택 단장 초청 2026 1st 북콘서트 및 신년음악회 개최
영화 ‘신의악단’ 100만 위한 퍼포먼스, 티켓 100장 무료 배포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최원호 담임목사) 본당은 어느 때보다도 흥겹고 신나는 음악 공연과 함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새해를 맞아 개최된 ‘은혜제일교회 2026 1st 북콘서트 & 김정택 SBS 명예예술단장과 함께하는 2026 신년음악회’는 클래식, CCM, 팝페라, 가요, 민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세련되고 힘찬 무대로 세대와 신앙을 넘어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 전율을 선사했다.

특별히 김정택 단장은 이날 압안 염증이 심해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종이글을 써서 관객들과 소통했다. 그러면서 타고난 흥과 재능, 여전한 연주 실력을 뽐내며 음악만으로도 특별한 감동을 전했다. 김 단장은 은혜제일교회 북콘서트에서 2023년 7월 간증과 공연을 하고, 그해 12월 연말 콘서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관객들의 요청에 힘입어 이번엔 앙코르 무대로 다시 초대된 것이다.

김 단장은 5년 전 구강암 발병으로 36차례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완치됐었다. 이날 고난 중에도 열정적인 피아노 연주와 시종 웃음을 잃지 않는 김 단장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자 살아있는 간증이었고, 눈시울을 적시는 성도들도 있었다.

김정택 단장의 제자 및 후배들인 소프라노 김형애, 여성 4인조 팝페라 그룹 엔젤다바, 경기민요 명창 양은별은 김 단장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각자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력과 완벽한 퍼포먼스,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로 감동과 은혜를 전했다. 대한민국 1세대 팝페라 그룹인 인치엘로(INCIELO)의 리더 태리도 콘서트에 참여해 후반부 공연에 풍성함을 더했다.

김정택 단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연주와 함께 박수와 환호로 시작된 콘서트는 김 단장의 ‘엑소더스(영광의 탈출)’,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영화 대부 OST ‘갓father(Godfather)’ 연주 등으로 이어졌다. 소프라노 김형애는 절제된 감정과 깊은 울림으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불렀고, 경기민요 명창 양은별은 민요풍의 찬양인 ‘아리랑 활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양곡곡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열창하여 찬사를 받았다.

양은별은 “김정택 선생님이 저를 최초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김 선생님이 지금 말씀이 어려우시지만, 아마 ‘저는 입안이 조금 아파서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김정택 선생님을 만나기 전



클로징 무대에서 전 출연자가 공연한 후 최원호 목사(무대 가운데)가 축도하기 전 멘트를 전하고 있다.

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선생님께서는 삶으로 크리스천이란 이런 것이라고 저에게 보여주셨다”라며 “오늘같이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연주회가 크건 작건 모든 음악회 구성원이 다 모여 손을 잡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서 항상 ‘저 좀 살려주세요’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시는데, 하나님이 늘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김형애 등이 함께한 엔젤다바는 환상적인 하모니와 퍼포먼스로 ‘꽃의 이중창’,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뮤지컬 맘마미아의 ‘나에겐 꿈이 있어(I have a Dream)’를 부르며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전했다.

마지막 클로징은 전 출연자가 ‘오 솔레 미오(O Sole Mio)’를 “은혜제일교회, 너

참 아름답다”로 시작하며 열창했고, 김정택 단장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음향팀과 기도해 주신 성도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원호 목사의 축도로 공연을 마쳤다.

이후 참석자들에게 최원호 목사의 저서들과 추천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고, 최근 역주행 중인 영화 ‘신의악단’ 100만 돌파를 위해 영화 속에 삽입된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부르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의악단’은 2월 2일 누적 관객 수 93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종교 박해가 심한 북한에서 돈을 위해 조작된 가짜 찬양단을 통해 진짜 신앙을 갖게 된다는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날 참석자들을 포함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전도 목적으로 100명에게 영화 관람 티켓을 무료로 전



영화 ‘신의악단’ 100만 돌파를 위한 퍼포먼스에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부르고 있다. 맨 앞줄 왼쪽이 김정택 단장 ©이지희 기자

달하기로 했다.

최원호 목사는 “이 작품은 우리 현실을 비추 주고 초대교회의 첫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고백이 노래가 아니라 삶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며 나누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설교보다 더 따뜻한 전도이고, 교회보다 먼저 다가가는 복음의 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영화 한 편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전도가 되는 자리, 그 나눔의 핵심은 바로 ‘초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혜제일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 북콘서트(매마.토.2.)에 문화, 예술, 신앙 분야의 유명 인사를 초청해 특강, 간증, 공연 등을 펼쳐 삶과 신앙의 지혜, 회복과 희망을 전해왔다.

오는 3월 28일 오후 2시에는 2026 2nd

북콘서트로 색소포니스트 심상종 교수, 트롬본 연주자 이한진 교수를 초대해 두 관악기가 어우러지는 ‘황금빛 봄의 선물, 어메이징 그레이스’ 콘서트를 진행한다. 사순절을 맞아 기도의 본질과 의미를 묵상하는 영성 에세이를 엮은 최원호 목사의 신간 ‘기도의 자리’ 출간 기념 북콘서트도 함께 진행되며, 참석자들에게 신간을 증정한다.

오는 6월 27일에는 ‘은혜, 감사, 소망, ‘염려하지 말라’ 등을 부른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월드비전 교회협력 홍보대사)가 초청돼 간증과 찬양을 나눌 예정이다. 최원호 목사는 “앞으로도 은혜제일교회 북콘서트는 신앙과 삶, 예술과 말씀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 많은 분께 삶의 위로와 방향을 드리길 원한다”고 전했다.(문의 02-433-0697) 이지희 기자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북한의 박해 현주소(2)

박해와 선교 현장(2) 북한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기독교가 융성했던 평양은 현재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곳 중 하나이다. 특히 성본 제도를 통해 기독교인을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여 감시하며, 발각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노동 수용소에 감금하거나 처형하는 등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의 감시 속에서도 약 40만 명의 신자가 지하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북한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글이다.

Q. 북한 주민들은 왜 탈북을 결심하나? 지도자에 대한 환멸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배고파서인가?

북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 때문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고,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었다. 당시엔 지금보다 탈북이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경 통제가 매우 강화되어 탈북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브로커 비용과 뇌물로 큰돈을 지불해야 하고, 친척 방문이나 노동 비자 등을 통해 중국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자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영구적 탈북이 아니라 생계 문제 때문에 잠시 다녀올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다. 정치적 이유보다는 배고픔, 빈곤, 생존 위기가 탈북의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건네는 모습(연출 사진) ©한국오피도어

Q.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주민들의 인식은 체제 선전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크게 따라 달라진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매체를 통해 기독교는 외세의 종교, 위험하고 악한 것, 북한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선교사가 아이들을 독살한다. 장기를 빼앗는다’와 같은 허구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주입된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기독교인을 국가의 적으로 본다. 믿지 않더라도, 생존을 위해 의심하거나 무관심한 척한다. 기독교인을 신고하면 식량이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배신이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선전을 믿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외부 미디어 유입으로 선전에 회의론을 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는 꿈, 개인적 체험, 설명할 수 없는 계기로 복음을 접하고 믿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이들의 간증은 복음이 아무리 억압적인 환경에서도 완전히 막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Q.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으면 어떤 위험을 겪나?

오늘날 탈북은 극도로 위험하다. 이웃 국가들은 대부분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체포 위험, 강제 송환 위험, 착취와 인신매매, 주가생계 불안이 뒤따른다. 특히 여성과 아동은 더욱 취약하다.

Q. 강제 송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북한으로 돌아가면 극심한 처벌을 받는다. 탈북은 중대한 범죄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가혹한 조사, 고문, 교화소·노동 교화소 수감, 강제 노동, 경우에 따라 공개 처형된다. 여성의 경우, 특히 외국인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강제 낙태가 시행되기도 한다. 기독교인으로 의심되거나, 외부에서 교회 혹은 믿는 사람과 접촉한 것이 드러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재판도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져 사실상 영구히 사라질 수 있다.

Q. 오픈도어선교회는 국경을 넘는 성도들을 어떻게 돕나?

오픈도어는 북한 성도들의 신체적·영적 필요를 모두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주

요 사역은 국경 지역 안전 가옥(세이프하우스) 운영, 음식, 약, 의복 등 필수 생필품 제공, 목회 상담, 트라우마 치유, 성경 훈련, 여성 대상 성경 공부, 장기적 돌봄 또는 돌아가기 전 준비 교육이 있다.

일부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 가족을 섬기고 조용히 복음을 전한다. 많은 사람에게 이 사역은 평생 단 한 번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기회이다.

Q. 북한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영적·육적 강인함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용기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시는 평안 △복음을 안전하게 전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적으로 북한 전역에 퍼지도록 기도해 달라. 또한 국경 너머에서 이들을 돕는 사역자들을 위해 △지혜와 분별력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 △사역을 지속할 힘을 위해 기도해 달라. 북한 성도들이 잊히지 않았으며,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깊이 느끼도록 기도해 달라. <끝> 한국오피도어



월드비전은 모든 어린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월드비전 후원 문의
02-2078-7000 www.worldvision.or.kr



英 젊은층 기독교 부흥론 과장 논란… 퓨리서치 “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

영국 젊은 층 사이에서 기독교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는 실제 상황을 과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조사 방식에 크게 좌우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퓨리서치는 최근 영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종교적 신앙과 실천 수준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여러 설문조사를 검토했다. 이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십 년간 이어진 쇠퇴 이후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퓨리서치는 이러한 결과의 상당수가 ‘옵트인(opt-in)’ 방식의 설문조사에서 도출됐다고 밝혔다. 옵트인 조사는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대신, 광고나 메일링 리스트, 온라인 패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퓨리서치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평가받는 무작위 표본(random sampling) 기반의 대규모 조사에서는, 젊은 성인층에서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논쟁은 2025년 4월, 성서공회(Bible Society)가 의뢰해 발표한 보고서 ‘조용한 부흥(The Quiet Revival)’ 이후 본격화됐다. 이 보고서는 옵트인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18~34세 중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결과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인용됐다.

퓨리서치는 이와 유사한 결론이 티어펀드(Tearfund), 임팩트 오브 페이스 인 라이프(Impact of Faith in Life), ‘응답된 기도의 영원한 벽(Eternal Wall of Answered Prayer)’ 프로젝트 등 기독교 자선단체나 신앙 기반 기관이 의뢰한 다른 옵트인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조사에서는 젊은 성인들이 기도, 온라인 예배 참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향후 교회 출석 계획 등에서 노년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무신론자로 정체화

할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퓨리서치는 무작위 표본 조사를 살펴볼 경우,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매년 2만 가구,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영국 노동력 조사(UK Labour Force Survey)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5년 여름 기준 영국 성인 중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규정한 비율은 44%로, 2018년의 54%에서 크게 하락했다.

18~34세 연령층에서는 기독교인 비율이 28%에 불과했으며, 이는 2018년의 37%에서 감소한 수치다.

또 다른 무작위 표본 조사인 영국 사회태도조사(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 역시, 기독교인으로 정체화하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젊은 성인 중 월 1회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런던대(UCL)의 사회과학자 데이비드

보아스(David Voas) 등 연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감소 이후 교회 출석이 다소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평가한다.

옵트인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적 보정을 거치더라도 표본 편향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부정확한 응답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 응답이 탐지 시스템을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인문주의 단체 휴머니스트 UK(Humanists UK)는 ‘조용한 부흥’ 보고서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서공회는 해당 연구의 타당성을 반복적으로 옹호해 왔다.

퓨리서치는 미국에서도 옵트인 설문조사를 근거로 젊은 세대의 기독교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퓨리서치 자체 조사와 일반사회조사(GSS), 미국 시간사용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등 인구 기반 연구들은 젊은 층에서 종교적 부흥이 나타났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퓨리서치는 옵트인 조사에서 나온 ‘부흥’ 관련 결과가, 이를 반박하는 무작위 표본 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언론 보도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영국 사회의 종교적 변화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퓨리서치는 일부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신앙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젊은 성인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독교 부흥을 주장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도 높은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성서공회 대변인은 퓨리서치의 분석에 맞서 ‘조용한 부흥’ 보고서를 옹호했다.

그는 “성서공회의 ‘조용한 부흥’ 보고서는 오랜 기간 검증된 방법론을 사용하는 고품질 유고브(YouGov)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고브는 응답 편향을 통제하는데 매우 엄격하다. 완벽한 설문조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옵트인 조사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고브의 결과를 지지하는 다른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며, 전 세계 영성을 다룬 최근 퓨리서치의 자체 조사 역시 종교성이 유고브 조사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조사들 간의 일치도가 높아 유고브 결과를 예외적인 사례로 치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과 웨일스의 영적 환경 변화의 또 다른 지표로는 성경 판매 증가, 성인 가톨릭 개종자의 눈에 띄는 증가, 젊은 층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늘었다는 유고브 조사 결과,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에서의 세례 및 교회 출석 급증 등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영화 제작사 ‘비라이트 프로덕션’ 출범

라틴계 목회자 최초 사례

사무엘 로드리게스(Samuel Rodriguez) 목사가 영화 제작사 비라이트 프로덕션(BeLight Productions)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며, 이 규모의 영화 제작사를 이끄는 최초의 라틴계 목회자가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엘 멘사헤 커뮤니카시오네스(El Mensaje Comunicacione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가 로드리게스 목사의 사역 연장선에서 출발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가치를 반영하는 서사를 통해 현대 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라이트 프로덕션은 이미 여러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그중에는 인기 드라마 시리즈 ‘오자크(Ozark)’의 제작자인 마크 윌리엄스(Mark Williams)와의 협업도 포함돼 있다. 해당 영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 중 하나를 설립한 할 도널드슨(Hal Donaldson)의 삶을 조명할 예정이다.

영화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플래밍 핫(Flamin’ Hot)’ 등의 흥행작에

참여한 바 있는 로드리게스 목사는 이번 행보가 신앙 공동체에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영화는 영향력과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제작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 이루고 계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세상은 복음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다시 기억하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라이트 프로덕션 팀에는 영화감독 파비올라 로메로(Fabiola Romero)와 홍보 전문가 파이카 카스트로(Fayra Castro)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히스패닉 시장을 겨냥한 탄탄한 제작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계 인사들 역시 이번 출범을 환영하고 있다. 영화 ‘플래밍 핫’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 리처드 몬타네즈(Richard Montañez)는 “그가 전 세계에 전해온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가 충분히 준비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향후 ‘더 드림 킹(The Dream King)’, ‘리빙 멘피스(Leaving Memphis)’ 등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 비라이트 프로덕션은,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에서 가치 중심의 영화 제작을 이끄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미디어 영역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로드리게스 목사는 미국 내 영향력 있는 메가처치 가운데 하나인 뉴 시즌 교회(New Season)의 담임목사이며,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수백만 히스패닉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전국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 콘퍼런스(NHCLC)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이미경 기자

이란 출신 기독교인 자매 2명, 불법 입국 혐의 재판 중 보석 석방

최근 불법 입국 혐의로 미 연방 당국이 구금됐던 이란 출신 기독교인 자매 2명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다.

성공회 뉴스 서비스(Episcopal News Service, ENS)에 따르면, 연방 판사는 지난 1월 16일(이하 현지시간) 마한 모타하리(Mahan Motahari:38)와 모잔 모타하리(Mozhan Motahari:31)에 대해 변호인 측이 석방 청원을 제출한 뒤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모잔 모타하리는 다음 날 석방됐으며, 마한 모타하리는 그로부터 며칠 뒤 풀려났다.

자매는 2022년 미국에 입국해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위치한 세인트 토마스 성공회 교회의 적극적인 교인으로 활동해 왔다.

세인트 토마스 교회의 담임인 프랜 가드나-스미스(Fran Gardner-Smith) 목사는 ENS와의 인터뷰에서 “석방 소

식을 듣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큰 기쁨에 휩싸였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매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이유로 구금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곳곳에 있다. 이들의 석방이 기쁘면서도, 다른 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가드나-스미스 목사와 세인트 토마스 교회 교인들은 자매가 구금된 기간 동안 법적 절차를 면밀히 지켜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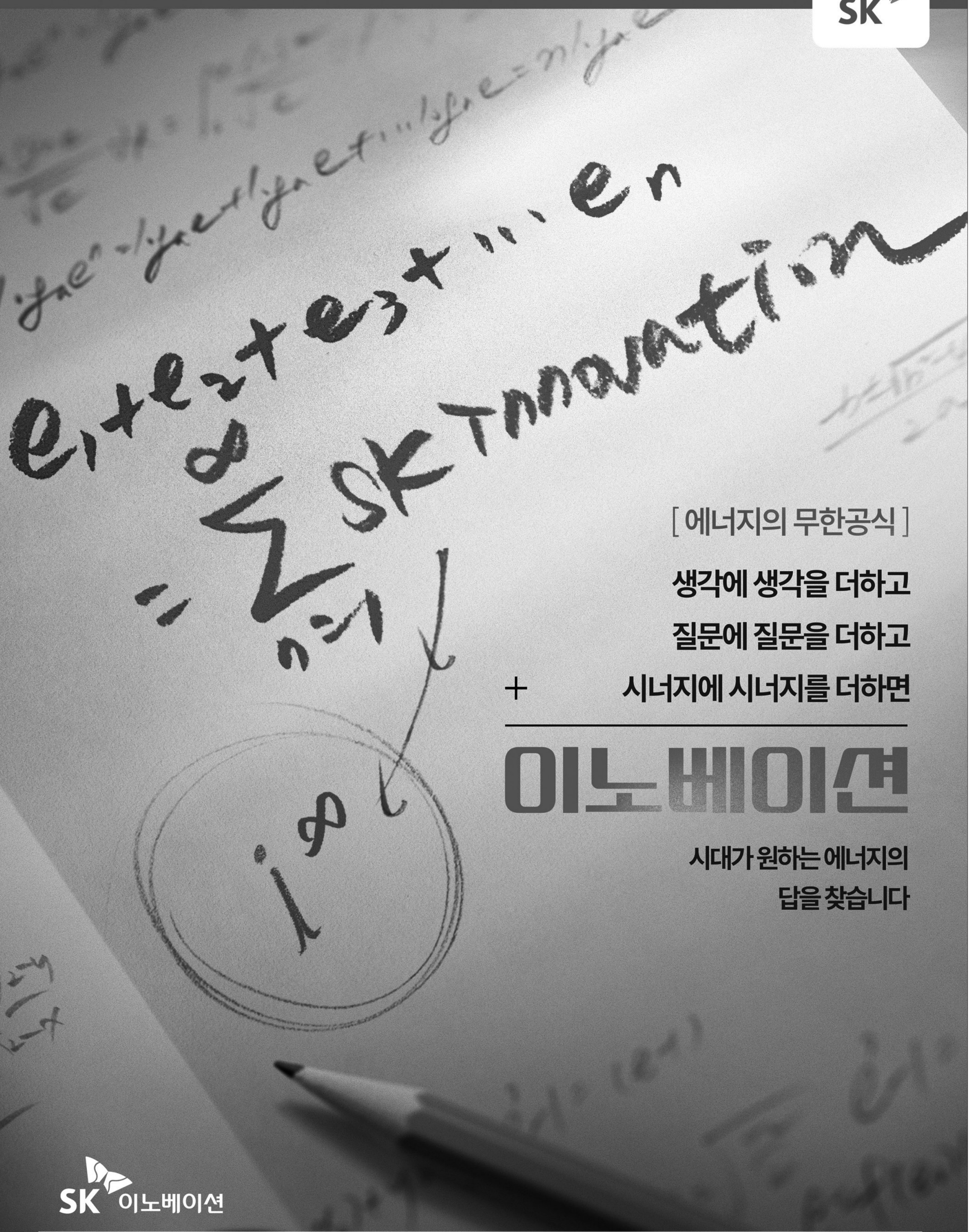
그는 “판사도 법정에 모인 많은 지지자들을 언급했다”며 “변호사 사무실에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공간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모타하리 자매는 이란에 있을 때 이미 기독교 신앙을 접했으며, 미국에 도착한 직후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미경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에스온

김민석 국무총리 “J.D. 밴스 미 부통령과 핫라인 가동”... 관세 재협상 국면 소통 강조

방미 직후 연락처 교환 후 수차례 교신...
트럼프 관세 발언 진의 파악에 활용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2일 방미 직후 구축했다고 밝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핫라인’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재협상 압박 국면에서 핫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장에서 직접 전화번호를 교환

한 이후 여러 차례 소통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밴스 부통령의 연락처와 함께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앤드류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전화번호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접촉 창구를 가동해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김 총리는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를 제외하면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던 메시지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 등을 제외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해당 발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메시지 제기 방식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핫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의 취지는 이미 논의돼 온 관세 합의를 보다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는 요청 차원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사안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지

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차분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쿠팡 배후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밴스 부통령이 쿠팡을 상대로 주된 압박을 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메시지의 주요 배경이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은 실재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쿠팡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 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해당 사안이 불필요하게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를 낳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국 기자

국민의힘·서울시, 한강벨트 포함 서울 도심 31만호 공급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병행... 여야·정·서 4자 협의체 제언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압박 보완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최소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주비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고, 해법으로 공공 확대와 민간 사업성 회복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주도 공급 방식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민간 중심 공급과 조기 착공을 통한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더 쉽다”... 핀셋 규제·머니 무브로 시장 안정 자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트위터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토 언급 이후 거래가 줄고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며 가격 흐름이 주춤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

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불법 계곡 정비와 주식 시장 정상화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역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장의 부담이 있더라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투자·투기 목적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국 기자

일론 머스크 제국 확장... 잭 웰치 시대 GE 닮은 ‘초대형 복합기업’ 부상

테슬라·스페이스X·AI 통합 구성 관측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사업 영역을 전방위로 확장하면서 과거 잭 웰치가 이끌던 제너럴 일렉트릭(GE)의 거대 복합기업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차와 우주, 인공지능 등 서로 다른 산업에서 운영돼 온 기업들이 하나의 전략적 틀로 묶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초대형 복합기업이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머스크 CEO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을 복합기업 구조로 통합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는 각 사가 분리돼 있으나, 자본 운용과 기술 협력, 장기 전략 측면에서는 결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약 8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S&P 500 기업 대부분의 시가총액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GE의 역사적 최고 가치와 맞먹는 규모로 평가됐다.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짧은 기간에 구축한 기업 제국의 외형이 과거 GE가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며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기와 유사하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가 서로 다른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머스크 개인의 의사결정과 비전을 중심으로 전략이 수렴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비교

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머스크의 ‘하드코어’ 경영 방식은 1980년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뉴트론 잭’이라 불렸던 잭 웰치 전 GE 회장의 성과 중심 경영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도 높은 성과 압박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혁신과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조직 안정성과 장기 관리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행보가 창업자 개인의 영향력이 기업 전반을 관통하는 ‘개인 중심 복합기업’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과거 GE가 조직 비대화 끝에 2024년 분할된 사례처럼, 복합기업 특유의 가치 저평가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규제 강화가 머스크 제국의 지속 가능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홍은혜 기자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그래미 수상... K-팝 작곡가·프로듀서 첫 영예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 곡 ‘골든’, 그래미 ‘베스트 송 리트론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 수상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품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주제곡 ‘골든’은 2일 한국시간으로 사전 발표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수상자 명단에서 ‘베스트 송 리트론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차지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이후 K-팝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독창적인 설정과 서사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작품 전반을 이끄는 음악은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됐으며, 이번 그래미 수상은 영화 음악으로서의 완성도와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수상곡 ‘골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통산 8주 동안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을 입증했다. K-팝을 기반으로 한 가상 그룹의 노래가 장기간 차트 정상에 오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 곡은 앞서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에서도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주요 국제 시상식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뒀다.

‘골든’을 작사·작곡한 한국계 미국 작곡가 겸 가수 이재(EJAE)를 비롯해 작곡에 참여한 테디(박홍준)와 24(서정훈), 프로듀싱팀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 더블랙레이블 소속 프로듀서들도 이번 그래미 어워즈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은 K-팝이 무대 공연과 음반 시장을 넘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비주얼 미디어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은혜 기자

救急胃腸藥 活命水

수명활

半島男兒의意氣衝天

孫基禎、南昇龍兩選手優勝祝賀

健康な體力、堅忍不拔なる耐久力に根源은오직健全한胃腸에서

胚胎된다健康한朝鮮을目標하고

다갖치胃腸을健全케하기爲하야

活命水를服用합시다

地帶五町泉和府城京 房藥和同 式株 九一七二光新館

근대민중의 활동수

반고리아의 인기종전 손기정 선수의 우승 축하

건조한 체질, 건기 불쾌하는 내구력의 근원인 오직 건조한 위장을 건전케 하기 위하여

건조한 위장을 보충하고 다같이 위장을 건전케 하기 위하여

활명수를 보충합시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SINCE 1897

동화약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다... 2026 달라스 위브릿지 컨퍼런스

건강한 교회와 목회의 회복을 향한 복음주의적 성찰의 장

미국 텍사스 주 지역으로 확장된 '달라스 2026 위 브릿지 컨퍼런스(We Bridge Conference)'가 미주 기독교일보 주최로 현지 시간 26일(월)부터 27일(화) 양일간 플라워마운트교회(최승민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연합, 섬김, 위로)"를 주제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연결하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LA를 비롯해 휴스턴, 샌안토니오, 오스틴 등 각지에서 자리에 참여했다.

첫날 이성일 목사(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오후 1시 30분에 '목회코칭이란 주제'로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트교회 사역목사)는 미주 한인 이민교회 현실 속에서 코칭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현재 사역의 방향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코칭을 통해 목회자의 역량을 키우는 '목회 코칭', 둘째는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을 세우는 '조직 코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히 평신도 코칭을 통해 교회 안에 건강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에 왜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는가, 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고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깊이 살펴봐야 한다"며 "진정한 양육의 99%는 일대일 코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조엘 코미스키의 말을 인용했다.

김 목사는 교회 내 일꾼 부족과 리더십 부재의 문제 역시 일대일 코칭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일대일 코칭에 집중하고 싶다"며 "참된 양육이 개인을 향한 깊은 코칭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평신도 리더들이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코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변화된 문화 속에서 지시와 명령 중심의 리더십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코칭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과거 산업사회는 상하 조직과 권위적 리더십이 중심이었지만, 오늘날은 수평적 관계와 자발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적 코칭 모델로 모세와 이드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소개했다. 김 목사는 "코칭은 관계로 시작해 관계로 끝난다"며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 관계를 맺고 사명을 깨닫게 하며 사역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위대한 코칭의 모습이다. 코칭을 통해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다니엘 박 선교사가 목회자, 남편과 아버지로 다시 서다를 주제로 한 목사 세미나 강의를 통해 목회자의 정체성 회복과 가정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사로 훈련받은 다니엘 박 선교사는 1993~1994년 결혼 이후, 더 깊은 사랑과 사명을 향한 도전 속에서 김준근 장로를 만난 계기를 소개했다. 그는 김 장로로부터 "왜 한국인을 미국에 보내셨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질문을 받으며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강의에서는 다음세대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왜 2세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가, 왜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마 기도운동을 통해 전국을 다니며 이 문제를 붙들어 왔다고 전했다.

그는 "2026년을 바라보면 가족과 교회가 무엇이 변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로 기도의 약화를 지적하며, 특히 새벽기도와 철야기도가 크게 줄어들었고, 담임 목회자의 기도 헌신이 약해진 것이 핵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다니엘 박 선교사는 회복의 열쇠로 '정체성'과 '이름'을 강조했다. 그는 '3 NAMES'를 언급하며,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세 자녀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나'를 회복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경험도 나눴다. 신앙이 깊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마지막 병상에서 축복을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축복의 말이 흘러나왔고, 그 순간 하늘의 임재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후 아버지는 8개월을 더 사시며 매일 축복을 남기고 천국으로 떠나셨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세번째 강의에서 김귀보 목사는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제목하에 설교의 본질과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설교를 기술이나 전달의 문제가 아닌, 말씀이 성도 안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가게 하는 통로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없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설교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종종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성도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듣고 싶어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목회자들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지루해질 것이라 오해하지만, 성도들은 본래 말씀을 기대하며 교회에 온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성경을 '렌즈'를 통해 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 평소 보이지 않던 인간의 반응과 내면이 드러나고, 요셉이나 다윗의 이야기가 곧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 모습, 공허함을 느끼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내러티브 설교"라고 강조했다.

김귀보 목사는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가 역사하게 하는 것"이라며, "말씀이 곧 성도의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돈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이민교회 사역의 현실도 솔직하게 나눴다. 다섯 차례의 교회 이전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돈을 계산하기 때문"이라며, 재정 계산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돈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보자"는 원칙을 교회에 심었고, 그 결과 돈이 없는 상황에서 200만 달러 건물을 구입하는 일도 경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성도들 안에 DNA처럼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귀보 목사는 "목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목회자가 그렇게 살 때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자연스럽게 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매주 수요일 교회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숲'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 목사(GMC 한미연회)는 첫째 날 저녁 특별집회 메시지를 통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움직이시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며 묵화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박 선교사

김귀보 목사
(달라스 콘나무교회)이성철 목사
(GMC 한미연회)

강태광 목사



플라워마운트교회에서 열린 달라스 위브릿지 컨퍼런스에서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는 목회자 소명의 회복에 대해 강의했다. ©미주 기독교일보

했다.

그는 "제자훈련을 마쳤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훈련과 삶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진다"는 고백이 성도를 가운데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묵화라고 설명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을 인용하며, 그는 참된 복음의 감격은 개인의 감정과 생각 안에 머물 수 없고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음이 한국과 미국에 전해진 것도 이 흘러넘치는 감격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디옥교회를 세운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 김준일 목사(블레스교회)는 네 번째 강의에서 '뉴 밸런스(New Balance)'를 주제로 개척교회 목회 현장에서 체득한 실제적인 목회 철학과 전략을 나눴다. 그는 개척교회 목회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미디아예배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개척교회 목회의 현실을 언급하며 "개척교회 목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행정, 교육, 예배까지 목회자와 사모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세대 신앙 교육을 교회 부사에만 맡기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교회 개척 초기 3년 동안 스스로를 '교육부 목사'로 살겠다고 결단했다. 다음세대 신앙 교육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시작돼야 하며, 교회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는 "교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연령대의 가정은 어느 도시든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블레스교회는 개척과 동시에 교육부를 구성했다. 김 목사와 사모, 단 두 명으로 시작한 교육부 사역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운영됐다. 예배는 울동 찬양으로 시작됐고, 이후에는 두 사람이 스캇(연극)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다. 매주 본문 말씀을 연극으로 풀어내며, 때로는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균형으로 '미디어 목회'를 제시하며, "앞으로 3년간 미디어 목사로 살겠다"는 또 다른 결단을 나눴다. SNS와 유튜브, 쇼츠 영상이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중요한 통로가 되는 시대 속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를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균형은 '예배 중심 묵화'였다. 김 목사는 "앞으로 3년간 예배 담당 목사로 살겠다"고 선언하며,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회 철학을 나눴다. 그는 "웃으면서 시작해 울면서 끝나는 예배"를 지향한다고 밝히며, 설교 이후 결단의 시간을 찬양으로 충분히 드리는 예배를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이 '행복 칼럼'을 쓰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성경은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한다"며 "행복은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목회 현장에 만연한 왜곡된 자아관을 지적했다. 강 목사는 "목회자는 교회의 크기나 숫자로 평가받기 위해 부름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며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는 순간, 목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강 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며 '에클레시아'와 '퀴리아코스'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에클레시아는 시민 공동체의 모임을 의미하며, 퀴리아코스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를 뜻한다"며 "교회관이 왜곡되면 교회를 숫자와 서열로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명이 모인 교회라도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목사는 건강한 목회를 위한 자기 관리 질문도 제시했다.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정 가능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건설적인 사람인가, 연결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회자는 개인 성장에 몰두해야 하며, 지속성과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쓰기와 독서를 자신의 행복의 원천으로 소개하며 "매일 칼럼 하나를 쓰겠다는 나와 의 약속이 나를 성장시켰다"

고 전했다. "LA에 온 지 8년이 되었고, 앞으로 10년만 더 이렇게 산다면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기독교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목사는 "과거 문맹률이 90%가 넘는 시절, 한국 기독교가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켰다"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강, 언어의 강, 문화의 강, 지리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문학을 알아야 성경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다"며 "책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읽던 책을 다시 펼쳐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며 "한 달에 10권,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보라"고 권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귀보 목사(콘나무교회 담임), 김경도 목사(플라워마운트교회 사역목사),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손해도 목사(달라스 코너스톤교회), 허양희 사모(어스틴 주님의교회), 다니엘 박 선교사(순회선교사),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 문선영 대표(Wise California 대표), 홍장표 목사(달라스 수정교회), 이윤영 목사(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 이성철 목사(GMC 한미연회), 최승민 목사(플라워마운트교회 담임) 등이 강사로 참여해 메시지를 전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에서 음악으로 모든 집회를 인도했다.

미주=토마스 맹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교회는 인간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최창국 교수 “예수님, 공황로 세워지는 사회 회복 위해 오신 것”

최창국 교수(백석대 실천신학)(사진)가 최근 복음과 도시 홈페이지에 ‘교회는 인간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교수는 “우리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죄의 결과나 인과응보로 보는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며 “고통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 실존적 차원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회는 심한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는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취약 계층의 고통을 인과응보나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쉽사리 넘어간다. 제자들도 그랬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습적 사고의 틀에 갇혀 제자들도 유대인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은 이미 행동한 악인이 있고 고난 받는 의인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자신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편견을 버리는 일과 맞닿아 있다. 예수님은 왜곡된 생각과 싸우며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건강

한 신앙은 왜곡된 생각과 편견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힘쓰며 기도하는 삶을 믿음 몸소 보여주셨다”고 했다.

이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진 신앙만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공황을 잃어버리고 정죄가 일상이 된 사회, 그런 사람들과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오셨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황의 마음을 심고, 공황로 세워지는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다”며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공황로 여기셨다’는 뜻이다. 공황(compassion)은 하나님의 자궁이, 의역하면 하나님의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신다는 의미이다. 예수님과 같은 공황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미안함과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공황로 마주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불치의 고통에 놓인 이들”이라며 “오늘날 교회는 급성 고통과 만성 고통에는 비교

적 민감하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교회는 방문하고 기도하며 돌본다. 그러나 한 종류의 고통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바로 불치의 고통”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살아가며 세 가지 고통, 곧 급성 고통과 만성 고통과 불치의 고통을 경험한다. 급성 고통은 상처나 수술, 질병과 관련되는 고통으로 대개 일정 기간 안에 회복된다”며 “만성 고통은 장기간 지속되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불치의 고통은 늙어감과 죽음에 직면하면서 경험하는 고통이다. 이 고통은 특히 노인들에게 가장 오래 머무는 손님과도 같은 고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는 노인들이 겪는 불치의 고통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한다. 급성 고통과 만성 고통은 외관으로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돌봄의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불치의 고통, 곧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늙어감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보편적인 고통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교회는 노인들의 고통을 더 세밀하고 깊이 이해하고 돌봄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고통 받는 이들을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성숙할 수 있다는 진리 앞에서, 이제 교회는 노인의 고통과 함께할 때”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일터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흔적은 있는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존 가마데스(사진)의 기고글인 ‘직장에서의 신앙에 대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When 2026 is uncertain, remember that God is not)’를 최근 게재했다.

존 가마데스(John Gamades)는 OrangeBall Creative의 사업가이자 리더,

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CBMC 신뢰반(Trust)은 자문가 포럼(Trusted Advisor Forum) 회원으로서 자신의 신앙 성숙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리더들이 정직과 진실성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 헌신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가끔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 말

이다. 지금 던지려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다.

만약 어떤 고객이나 동료가 당신의 일터에서의 삶을 관찰한다면 당신의 결정, 인간관계, 압박 속에서의 태도까지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영역은 완전히 보이지 않을까?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편인가, 아니면 숨겨두는 편인가?

WeConnectScience

충전 한번으로 메디슨 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 주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괜히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잖아?” 또 동시에, “내 기독교 신앙은 주일에만 지키는 게 맞지, 평일 한가운데까지 끌어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

필자 역시 오랜 시간 이 씨름 속에 있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과, 직장 문화 안에서 안전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필자의 일터에는 신앙의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만약 범정에 섰다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일터에 신앙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드러나는 증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는 방식이 신앙을 얼마나 크게 외치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그 증거가 된다고 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우리가 신앙에 대해 말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행동은 이미 신앙을 말하고 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박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신앙이 드러난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우리의 ‘일’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타월함으로 일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본다. 단장

그것을 신앙과 연결 짓지는 않더라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다름이 훗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는 문이 된다. 필자의 친구 돈 호퍼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말하는 방식에 드러나는 증거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혹은 무너진다. 야고보는 혀의 함에 대해 단호하게 말한다: “혀는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다” (야고보서 3:5)

스트레스 속에서, 갈등 가운데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가? 아니면 상황이 어려울수록 인내와 절제, 은혜가 담긴 말을 선택하는가? 바울은 우리의 말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4:6)

이는 진리를 피하라는 뜻도, 늘 눈치만 보라는 뜻도 아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신중하고 절제된 말을 하라는 뜻이다. 때로는 주변 대화에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 더 쉬운 길이지만, 그 유혹을 거부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입으로 말할 용기가 있을 때 드러나는 증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문이 열리고, 그 때는 믿음을 분명히 말로 표현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신앙이 개인적이고 숨겨진 신념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32)

이 말은 회의를 설교로 만들라는 뜻도, 모든 대화에 억지로 신앙을 끼워 넣으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적절한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

인지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써 내려가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나누라는 뜻이다.

그 모습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동료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앙이 어떤 기준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 혹은 누군가가 희망의 이유를 물을 때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의 믿음이 한 번도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할 수는 있어도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지는 결코 알 수 없다.

◆더 나은 길

우리 대부분은 이 긴장을 느낀다.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숨기고 싶지도 않다. 대답은 더 시끄럽게, 더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용기 있고, 더 진실해지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 균형을 이렇게 표현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3:15)

온유와 존중은 메시지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메시지를 강화한다. 많은 이들에게 직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에는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은 매일 가까워서 보고 있다.

◆2026년을 향한 도전

만약 올해가, 사랑에 뿌리내린 방식으로 조금 더 의도적이고 담대하게 신앙을 드러내는 해가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증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그 답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리고 매일의 신앙 고백 속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 누구도 공급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자. 최승연 기자

“손현보 목사 석방 환영… 종교의 자유 침해 없어야”

언론회 “교회, 종교자유·정교분리 명확한 입장 세상에 밝혀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논평을 통해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판결 후 석방된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에게 대해 “석방을 환영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약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이날 즉시 석방됐다.

언론회는 범인이 손 목사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재판 직후 손 목사가 밝힌 입장에 주목했다. 손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며 “바른 사법 제도

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목사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해당 원칙의 기원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정교분리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 행위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청교도들이 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말도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가치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판결에 대해서도 “판사는 판사의 양심대로 판결하고, 나는 그에 따른 양심과 신앙의 가치에 따라 판단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손 목사가 구속된 기간 동안 미국 사회에서 나타난 반응도 전했다. 논평에 따르면 손 목사의 자녀들이 두 차

레 백악관에 초청돼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 내 목회자 1만 명이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미 국무장관과 부통령도 이 사안에 관심을 보였고, 최근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방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우리나라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한다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한 말들에 대해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성경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목사가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영 기자

예레미야, 패권전쟁 시대에 망국을 읽다



민종기 목사
KCMUSA 이사장
충현선교교회 원로

창 던지는 자의 실로암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던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며,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어려운 사역, 즉 유대왕국의 멸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는 별명과는 달리, 감성적이기보다는 좀 더 의지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접근이 불허된 그는 동역자 바룩을 세워 계시를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전합니다.

그 책이 왕궁에 알려지자 여호야킴 왕이 그 말씀의 낭독을 들으며, 두루마리 책을 칼로 베어 화로에 태웁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다시 적어, 지금 우리가 읽

는 성경책으로 남습니다. 그는 40년의 사역을 마치며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Lamentation)를 남깁니다.

예레미야는 국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투옥과 시위대 연금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압도적인 중근동의 패권국으로 등장한 느브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권세 앞에서, 중근동의 나라들이 항복과 멸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와 같은 마지막 유대 왕이 멸망을 자초하는 외교적 실책을 저지르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유대왕국이 멸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는 왕과 정책 결정자들이 국제 패권전쟁에서 일어난 변화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의 부상으로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BC. 612)하고, 갈그리스 전투(The Battle of Carchemish)에서 앗시리아-이집트가 패퇴함(BC. 605)을 보고도, 친이집트 정책을 구사한 것입니다. 패권전쟁 중의 외교는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것인데, 유대 정책결정자들은 망국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에는 국제관계를 읽어줄 지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에 의하면, 선지자는 당시의 "사회비평가"입니다. 그들은 영적, 사회적 기상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고,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완악한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고 불사르리라"(렘 37:8, 10) 예언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그의 예언에, 왕은 '항복한 왕'이라는 조롱을 두려워하며 저항하려 합니다. 반바벨론 이념으로 세뇌된 고관들은 불신앙의 카르텔이 되어 거꾸로 의로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유대 나라가 건국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기반한 왕국은 공의와 자비, 정의와 긍휼의 나라로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하나님의 공의(츠다

카)는 부르짖음(츠아카)이 되었고, 정의(미슈파트)는 포학(미슈파츠)이 되었습니다(사 5:7). 히브리인 노예는 율법을 따라 안식년과 희년에 해방되는데, 백성은 자비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시대 잠시 고관들이 자유와 해방의 법을 따라 노예를 풀어주었다가, 그들을 데려다 다시 노비를 삼습니다(렘 34:8-12).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렘 5:1). 신법(神法)을 저버린 나라는 더 이상 신국(神國)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왕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내가 왕을 관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라"(렘 38:15)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자적 비관주의"(prophetic pessimism)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29:10)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예언자적 낙관주의"(prophetic optimism)입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위해 슬픔을 넘어 새 소망의 마중물을 붓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모두에게 은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비대칭적인 능력의 전능자이시지만, 내게 고난과 불행이 오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all things)"은 힘든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어려운 것, 마음이 아픈 것 등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또 "협력"이란 단어의 뿌리인 헬라어 "수네르게오(sunergeo)"는 단순히 여럿이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sun) + 일하다(ergo)'라는 아주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synergy(시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동반 상승효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댄스에서는 1+1=2가 정답이지만, 시너지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상호작용과 비대칭적 도약이 만들어져 10, 50, 100이 되어서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위해 우리들 믿음의 그릇을 크고 넓고 깊게 만드시는 하늘나라 큰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재단법인 복미순복음선교회가 주관하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조찬기도회를 비롯하여 순복음 북

미재단이사회, 북미총회 실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와 목사안수식, 그리고 순복음 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영훈목사 초청 LA축복성회와 한세콘서트콰이어 특별공연들까지 결코 쉽지 않은 행사들이었습니다.

사실 나타나는 큰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와 헌신은 몇 갑절이나 더 커야 하는 법입니다. 한국과 북미 등 각지에서 오는 손님들의 라이드는 복잡한 공항 상황과 계속 바뀌는 스케줄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각기 다른 팀들의 식사와 일정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평소 관계가 별로 없는 정치가와 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르는 일에는 항상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 당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혜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정성

을 담은 웰컴 패키지와 선물들과 구디백은 많은 분들을 감동시켰고, 공항까지 마중나간 장로님들의 식사 대접과 권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의 식사는 때마다 감동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일을 도운 안수집사회와 찬양팀과 헌금송팀, 중보기도팀과 미디어국과 모든 부서에서 몸으로 헌신한 성도님들과 한세콘서트콰이어 36명의 숙박을 6박7일 동안 섬겨주신 최봉제안수집사님의 가정을 비롯해서 물질로 헌금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협력하여 한국과 북미 전역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 하듯이 긍정과 부정도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되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 속의 소중한 가치를 담다



최선 박사
OCU대학교 교수,
SBCM KOREA 대표

국난과 민족적인 시련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었다. 그러한 역사가 깃든 총절의 고장, 한국교회사에서 잊을 수 없는 충남 공주시 기독교박물관에 다녀왔다. 인근에 있는 영명중·고등학교 역사박물관과 기독교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배출한 오래된 교정 곳곳에는 역사의 흔적을 증명하듯 동문들의 동상들이 있었다. 영명동산에서 한 눈에 바라본 공주의 시내:는 최고의 장관이었다.

학교 뒷동산에 있는 우리암 선교사와 우광복 선교사 묘소를 찾았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의 무덤을 찾아 그들의 신앙 유산을 기억하면서 고국을 떠나 동방의 끝자락 조선에 복음과 병행, 교회를 세워주신 선교사들에게 늦었지만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3.1독립운동과 복음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공주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1885년 미국 감리회는 조선에 첫 선교사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공주는 1888년 스크랜튼 선교사의 방문으로 한강이남 충청지역 선교의 요충지 및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1901년 7월 공주지역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902년 초가 한동의 교회를 시작으로 1903년 7월 하리동교회, 1909년 5월 협산자 예배당, 1931년 11월 상반정 공주읍교회를 개척했다. 공주지역 감리회와 공주제일교회는 원활한 선교활동을 위하여 공주읍내에 영명학교와 공주유치원, 방은두병원 등을 설립하여 대사회적인 선교를 펼쳐갔다.

뿐만 아니라, 공주지역 감리회 공동체는 공주읍내의 3.1만세운동을 주도했다. 공주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6.10만세운동, 신간회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등에 참여했다. 특히 공주지역 감리회공동체는 각종 강연회나 야학회 등을 통하여 공주지역 신문화보급운동에 앞장섰다.

감리회공동체의 중심에는 공주제일교회가 있었다. 근대기에는 공주시 사회복지와 교육을 주도하였다. 민족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견뎌낸 공주제일교회는 공주시 근·현대사가 집약된 역사의

현장이다. 민족의 아픔을 함께한 공주제일교회 구예배당과 공주기독교박물관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

1919년 3월 1일 이후 공주시에도 독립만세운동의 물결이 확산되었다. 동년 4월 1일 오후 2시 공주를 장터로 중심으로 일어난 만세시위는 공주읍교회(현 공주제일교회)의 현성철 담임목사가 총 지휘를 하였다. 당시 공주읍교회 임원이며 영명학교 교사였던 이들과 학생 등 공주지역 감리회공동체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다.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가지고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던 이 운동에서 현성철 담임목사 외 17명의 인물들이 피검 되어 판결을 받았다.

공주제일교회는 1900년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관장하는 수원 이남의 감리교 중심지였다. 1902년 반죽동에 초가 1동을 구입하여 김동현 전도사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903년 7월 맥길 선교사의 파송과 더불어 초가 2동으로 본격적으로 선교를 진행하였다.

당시, 50-60명에 불과하였던 교인이 1907년에 이르러 300 여명으로 성장하였다. 예배당 확장이 불가피했지만 당시 교회 안팎의 사정은 녹록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선교부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우산을 쓴 한 사람이 많은 헌금을 내놓게 되었다. 이 재원이 공주로 보내져 1909년 5월 예배당을 봉헌하게 되었다. 봉헌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리며 교인들은 이를 협산자(우산을 든 사람)예배당이라 불렀다.

안타깝게도 6.25한국전쟁 당시 폭격에 의해 교회의 상층부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1956년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당이 재건되었고 협산자 예배당의 건축자재를 일부 사용하였다. 모든 재건은 기술자들 외에는 다른 일꾼 없이 교인들의 자발적 참여로만 진행이 되었다. 1979년에는 스테인드글라스를 교회 전면에 설치했고 출입구를 넓히는 등 증축을 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어느덧 31운동이 일어났던 세월이 107년이 되었다. 조국의 독립과 한국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국의 열정은 지금도 여전히 후손들의 가슴에 흐르고 있다. 다시 한 번 자유대한민국의 번영과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나라가 문화와 신앙의 기둥이 든 든하여 국내외 악한 세력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의 교회가 무궁한 발전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세워져서 십자가 복음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 - 1618 - 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열작통(병통증), 월경통(생리통), 위장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사건과 반응 사이에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제가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제게 찾아온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장들이 쓰러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좋은 문장을 찾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물론 저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니 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제공해 주지만, 그 지혜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래서 목상이 필요합니다. 목상 가운데 우리는 구체적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함께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떠올립니다. 제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을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풀어 줄 명문장과 명언, 예화와 이야기가 담긴 책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삶의 기술을 알려 주는 책을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가 저를 멈추게 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경탄하게 만드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문장이 성경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좋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지혜의 근원은 성경이며, 모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놀라운 글을 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적 속에 담긴 지혜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사서오경을 읽어보셨는지요. 고전을 읽어보셨는지요.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책들입니다. 매년 한국에서는 6만 권이 넘는 책이 출판되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반면 고전은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전이 시대를 초월한 인생의 문제와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적용 가능한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온 좋은 문장들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매닝기의 말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이 문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쉽게 그것을 ‘불행’이라 규정하며 좌절하곤 합니다.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결국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상황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장과 연결되어 또 하나의 문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의 10%와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며, 반응이라고 말입니다.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

아고보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긍

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목상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찾아온 혹독한 시련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고, 그는 역경을 넘어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창 50:20). 요셉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저는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문장을 만났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성숙과 행복은 그 반응에 달려 있다.” 우리 인생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종종 신랄자 사인의 짧은 시 ‘불행’을 떠올립니다.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욕이 되리나” 시인은 불행을 거부하거나 함부로 다루면 우리 삶이 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피하지 않고 정성껏 마주하며 견뎌낼 때, 그것은 결국 보석과 같은 삶의 열매로 변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어느 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라는 문장을 목상하던 중, 또 하나의 도전적인 문장을 만났습니다. “반응만 하지 말고 창조하라.” 이는 사건에 끌려 다니며 반응만 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헤브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입니다. 사건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반응만 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복의 원리



권봉주 목사
감사한교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피조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죄로 인해 흑암으로 얼룩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속죄의 은혜로 완성되었다고 해서 구속사(Redemptive History)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뜻과 생각과 의지가 담긴 지혜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법이며,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지식과 지혜이며,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

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삶의 분명한 지침과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원리와 원칙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과 지혜와 상반되는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서”라는 성경적 원리는 세상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세상 지혜는 “다 잊어라 결국 지나갈 일이다 과거에 묶여 살 필요 없다 흠을 털어 버려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반정이 있었겠지’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용서”라는 원리는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달아 있는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잠

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잠언은 많은 지혜자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비법입니다. 이 같은 유사성은 인간의 모든 지혜는 결국, 그 뿌리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만지 않는 분들의 공감할 수 있는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써, 세상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언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앞으로 종종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의 서두에는 잠언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느 가르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허무맹랑한, 아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곧 진리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출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좋은 지각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늘 자신의 생각과 의지 감정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리 속, 마음 속에 맴돕니다. 그 말씀이 양심에 부딪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칠 때, 나의 인간적인 뜻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좌에서 떠나게 되고, 축복의 길로 걸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 그의 삶에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신앙의 근본이자, 본질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위치에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김진홍 목사
두레수교회

관용은 다른 말로는 너그름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간구는 기도가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 합니다.

관용 곧 너그름은 크리스천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원일인지 너그름이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너그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럽고 이웃에게 엄격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용 곧 너그름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아 길러 나가야 합니다.

관용과 비슷한 말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상대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입니다. 상대의 아픔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일러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불행에 대하여 공감을 지니고 안타까워하며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베푸십니다.

크리스천의 마음은 이웃에 대하여 관용 곧 너그름을 지니고 그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문화누리카드 2일부터 발급… 취약계층 270만명에 연간 최대 16만 원 지원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청소년·60~64세 추가 혜택 강화

정부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해 1인당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총 27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올해는 특히 청소년과 고령기에 진입한 계층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이용자에게는 기본 지원금에 1만원을 추가해 1인당 총 16만원을 지원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제로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왔으며, 2017년 6만원에서 지난해 14만원까지 거의 매년 인상을 이어왔다.

올해는 국비 2636억원과 지방비 1109억원을 포함해 총 37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70만명을 지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과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로 3만원 이상을 사용했고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이용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이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됐다. 자동 재충전



이 완료되면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일 이후부터는 주민센터와 누리집,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5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배구·농구·축구·야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최대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용품 구매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을 활용한 '나눔티켓'도 1

인당 최대 4매, 월 3회 한도 내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할인 혜택, 나눔티켓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가 적용돼 이용자 주변 가맹점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이용 선택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버서 '구뽀'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카

드 발급도 지원했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재발급 시기를 놓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한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충전할 수 있으며, 연간 충전 한도는 200만원이다. NH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이정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올해는 지원금 확대와 함께 청소년과 노년 초기 이용자, 지역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한부모여성 창업지원 ‘희망가게’ 지원자 모집

아름다운재단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지원자 모집

아름다운재단의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가 오는 2월 27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구체적 창업계획을 가진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시 담보나 보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지원 가능하다.

희망가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창업 대상자에게 최대 4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제공한다. 창업자금의 상환금리는 연 1%이며 상환기간은 8년이다. 상환금은 또 다른 한부모 여성의 창업 지원금으로 쓰인다. 또 창업 교육, 개업 후 사후관리 등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과 함께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및 개인기술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부모여성 맞춤형 창업교육사업'을 통해 사업 목표 수립, 시장 환경 분석 등 창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전문가들의 1대1 멘토링을 통해 각자의 사업 단계와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바 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희망가게가 한부모여성이 자신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볼 수 있는 출발선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재단은 대출지원과 창업 교육을 통해 한부모여성 창업주들 창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서는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별 협력기관에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이번 1차에 이어 6월에도 희망가게 창업주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이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을 위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3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최승연 기자

배재대 유아교육과 70주년, 신앙의 유산으로 잇는 사랑의 장학 나눔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
첫 제자 임복희 여사,
모교에 세 번째 장학금 기탁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설립 70주년을 맞아 학교 전신인 대전보육초급대학 1회 졸업생이자 재미 교육자인 임복희 여사가 모교에 장학금 1만 달러를 기탁했다.

배재대학교에 따르면 임복희(91) 여사는 최근 친필 서한과 함께 미화 1만 달러(약 14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2022년 5만 달러, 2023년 3만 달러에 이은 세 번째 기부로, 누적 기탁액은 9만 달러에 달한다.

임 여사는 배재대 유아교육과의 전신인 대전보육초급대학 1회 졸업생으로,

한국 유아교육의 선구자인 클라라 하워드(Clara Howard·한국명 허길래) 선교사의 첫 제자다. 졸업 후 대전 지역에서 유치원 교사로 활동했으며, 1961년부터 1969년까지는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스승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시카고 공립유치원에서 30여년간 교사로 근무하며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임 여사는 김옥 배재대 총장에게 보낸 친필 서한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재대 유아교육과가 중부권 최고의 유아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데 감사하다"며 "허길래 장학금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 후배들의 학업을 돕고 싶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장학금 기탁에 대해 배재대는 감사패와 총장 서한을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 첫 제자 임복희 여사. ©배재대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배재대는 임 여사가 기탁한 장학금을 바탕으로

총 1억 6000만 원 규모의 '허길래 장학기금'을 조성해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지원 속에 배재대 유아교육과는 전국 사도교육원이 주관하는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1학년도 충남도 수석을 비롯해 2022학년도 전북도 차석, 지난해 대전시 수석과 차석, 세종시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송진숙 배재대 유아교육과 학과장은 "임 여사의 장학금 기탁은 후배와 모교를 지극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배재대 유아교육과는 교육적 성과뿐 아니라 선후배 간 끈끈한 정으로 70년 동안 이어진 교육공동체"라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양천해누리복지관, “방학도 배움의 시간” 장애청소년 계절학교 성료



계절학교 프로그램 현장의 모습. ©주최측 제공

양천해누리복지관(관장 김경환)은 장애청소년들이 방학기간 동안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계절학교는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장애청소년들이 외부와 단절되지 않은 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또래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일상 속 경험 확대

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문화·여가활동과 외부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체육활동 ▲키오스크 교육 ▲도어벨 만들기 ▲실내 동물원 방문 등 장애청소년의 흥미와 참여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은 또래 및 타인과의 그룹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복지관 김경환 관장은 "이번 계절학교가 장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계절학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천해누리복지관 배움문화팀(070-4804-6054)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승연 기자

www.e-construct.co.kr

여러분의 욕실 문화를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욕실 관련 전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욕실용품 전문회사 이견비앤코

대표 최 훈 용 경기도 군포시 건릉로 243-6(대야미동) 031-438-2576

욕실자재 전문회사
이건비앤코(주)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독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움6길 4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택 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가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갈급한 목회자와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 역	일 시	장 소	대표연락처
대 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예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검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산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윤공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일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실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천안 충남 경기 세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아교회(담임 김홍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강사소개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흥사 / 성장교회예식법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교정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흥사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부흥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척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AI VOCAL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감행감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 새를 함께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38)**

분열 왕국시대 교회(B.C. 931-586)
솔로몬 왕의 무리한 건축과 강압 정치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미 왕국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스라엘 왕국은 남 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하여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두 부족 왕국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10개 부족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세겜을 수도로 하였다가 제6대 오므리 왕(B.C. 885-874) 때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성경(왕상 12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조세 인하와 강제 노동 완화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왕상 11:26-39'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

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남북 왕조로 나누실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전에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분열을 예고 하셨습니다(삼하 12:7-12).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 분열의 근원은 다윗의 패역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주석가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특히 삼하 7:12-16, '삼하 12:25-26'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다윗의 후계자로 내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견해에 반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불법의 하나님으로 격하시키는 망령된 주장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밋세바의 패륜에 의해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뿐만 아니

라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자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장차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 앞에 불순종과 타락과 행악함으로 일관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분열시킬 장본인입니다.
'삼하 7:12-16'에는 이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고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뱄하시어 왕위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히려 불법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솔로몬 아닌 다른 왕자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 솔로몬, 밋세바 그리고 선지자 나단까지 가세한 인간적 욕심과 음모에 의하여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것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사무엘하 12:25-26'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밋세바가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했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 것은 다윗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에는 특별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다윗의 불의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왕위에 등극한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것은 밋세바의 욕심이고 밋세바를 편애한 다윗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불의와 야합한 나단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들의 불법과 악행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혼란을 감안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 밋세바, 나단 등의 불법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왕자를 왕위에 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 위하여 그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장자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삼하 7:12-16).
따라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에는 엄중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습니

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거나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적 민족적 분열이 있을 것이 경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분열은 이미 예고되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패역무도함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악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함부로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여 왕위에 등극시키신 것으로 주장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어 고의적으로 이스라엘을 분단시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원인은 어디까지나 다윗과 솔로몬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제된 허용이었습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이스라엘라이프 **아브라함 시대의 근동역사와 문명 (5)**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1-2)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에블라(Ebla)를 만났을 것입니다. 1970년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제2대 도시 알레포에서 남쪽으로 50km 위치한 텔 마르다흐에서 농부의 땅이집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고대 도시 에블라는 썸의 4대 후손 에벨의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동남쪽으로 수메르 도시, 북쪽으로 하란, 서쪽으로 지중해 도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인 이 성읍은 BC 3,000년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BC 2,400년경 전성기를 꽃피었습니다. BC 2,300년 중반 메소포타미아를 휩쓴 아카드의 침략으로 도시가 불타고 파괴되었는데, 왕궁 터에서 2만여 점의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지만 점토판은 오히려 불로 인해 더 단단하게 구워져 현대까지 전해져 근동 지역의 세계 및 언어를 연구하는 귀한 자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블라는 수메르 도시들, 특히 근처의 마리(Mari)와 외교 및 교역 관계를 가

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제, 조세, 교역, 외교, 행정 등의 내용을 수메르어와 에블라어로 기록하였으며 특히 수메르어 사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텔 마르흐 에블라 유적 점토판 보관소 복원 점토판 췌기문자 일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주요 도시는 다메섹(다마스쿠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라에셀이 다메섹 출신인 것으로 보아(창 15:2) 아마도 이곳에서 그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한 곳으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등재 보고서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다마스쿠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요한 문화,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다마스쿠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계속적으로 인간이 거주한 도시 중 한 곳이었다”라고 기록하며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가치는 국제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양대 문명을 잇는 국제 대로에는 ‘해안길’과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모든 길들이 연결되는 곳이 다메섹입니다.
해안길은 우르가 있던 수메르 도시에 블라-다메섹-하솔-므깃도-지중해 해변-가사-시내 반도-이집트를 연결하는 도로로 고대부터 국제 도로로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므깃도에서 두로, 시돈으로 가는 지선과 요단 계곡 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선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는 다메섹과 흉해 아카바만의 에시온게벨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길하레셋, 다분, 헤르본, 압만, 길르앗라못 등 요단강 오른쪽 도시들과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창 12:5-6)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 땅의 주요 도시들을 지나치고 세겜 땅 모레라는 곳에 멈추어 이곳을



거점으로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를 성경은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 10:19)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중해의 시돈에서 가사, 그리고 사해 동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돈 족속과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 15:19-21)
가나안의 서쪽인 지중해 해안가에는

두로, 시돈, 비블로스라는 고대 문명이 발달하였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페니키아라는 말이 가나안의 다른 말입니다. 페니키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와 레바논 해안 지대, 즉 지중해 동안을 일컫는 고대 지명 및 문명으로, 주요 도시인 비블로스(Byblos), 두로(Tyre), 시돈(Sidon) 등은 BC 3,0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여러 민족이 혼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나안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에 종사했으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 지역에 전달

하는 중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상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서양 알파벳의 모체가 된 페니키아 알파벳을 전달한 문화 전달자로서 기여를 하였는데, 그들의 알파벳은 상행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표의문자인 췌기문자를 표음문자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페니키아라고 불린 것은 BC 1,200년경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포이니키스’, 즉 ‘자(紫)색의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곳 사람들이 값비싼 보랏빛 염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길에서 배우는 세계와 여행 이야기 제공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은혜의 샘물

바꾸어 말하면,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 사이에 고난이 삼촌하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끌어당겨 맛보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연단 받아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그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인간이 죄성을 지닌 육체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중생과 함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결국 순종의 어려움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방법은 인간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성(罪性)이 가득한 육신을 입히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8:4).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고 하나님의 영의 의도와 목표에 방향이 정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8:5-6).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인도를 받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반대로 육적 분위에게 지배되어 사는 사람은 육의 의도와 목표를 따르게 되며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 동거

셋째,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8:37)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8:26-27).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

1.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이 죄의 삯이라는 점에서 고난은 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픔을 통해 옳고 그릇된 것을 배우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기 때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
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교회와의 관계

창골산 봉목사 제공

자기의 길 가기

종이 반을 가르고

그런 후에
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과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거기에서 나만의 길,
나의 소명,
나의 진정한 행복을 만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지휘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 13:15)

이선우 지휘자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福祿)을 누리거니와”(잠 13:2)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복록까지도 누리게 된다는 이 입술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입술로 찬미함에 있어 올바른 찬미를 올려 드리도록, 지휘자들은 본인도 기도하며 이 일을 찾고 대원들을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1. 입술의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고 지치는 일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괴로운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한 경쟁 시대의 각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온갖 세상의 짐이 두 어깨를 짓누르고 사방이 우

거 싸움을 당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항상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주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환경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곧 항상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끊이지 않는 찬미가 흘러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곤고한 상태에서도 드릴 수 있는 찬미의 제사가 진정한 제사입니다.

2. 입술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찬미가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같이 그렇게 찬미를 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휘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찬양의 지도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 제사에는 피 흘림의 희생제물이 필요하듯 찬양에는 희생과 손실의 값이 치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물질, 땀, 눈물, 충성, 진정한 섬김 등을 쏟아 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찬미는 살찐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일이지만, 이 기도보다 사탄이 더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신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힘차게 부르는 찬미입니다. 둘째, 제사에는 희생 제물만이 아니라 향도 필요합니다. 찬양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바로 그 향입니다. 향나무에서 잔액을 빼내어 만들어진 것이 향입니다. 나무나 껍질이나 잎을 태우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찬미가 곧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향내 나는 제물인 것입니다. 이런 찬미를 우리는 쉬지 말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3. 이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복록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13장 2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잘 맺으면 복록을 누리다”고 하시고 잠언 12장 14절에는 “복록을 누리되 족하게 누리

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복이란 말과 축복이란 말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복록이란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열매를 맺은 자는 복록을 누리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복록이란 말에서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 ‘록’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록은 옛날에 왕이 베풀하는 사람들에게 내렸던 은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복, 양곡(쌀), 노비, 농토, 우마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 즉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복을 보장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복록을 누리길 원한다면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입술의 찬미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세 번 새벽, 낮, 저녁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루에 일곱 번씩’ 드렸다고 합니다(시 119:64).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 하고 보여주는 찬양은 노

래이지 찬양이 아닙니다. 깊이 묻어나는 영의 찬양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인 찬양이 쇠잔한 교회나 지휘자는, 심장의 맥박이 끊어져 가는 교회이거나 그러한 지휘자입니다. 찬양의 모습이 그 교회와 그 지휘자의 영적 건강 측정의 바로미터입니다. 인적, 물질, 자원이 보잘것없는 천막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찬송이 역동적이라면 그 교회는 건강할뿐더러 미래도 밝습니다.

아무리 인적, 물질 자원이 풍부한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찬송이 신령과 진정이 없고 찬송이 침체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병들어 있고 미래는 매우 비관

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지휘자는 입술의 열매를 맺기까지 정체성 있는 찬미의 제사를 씀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피 있는 제사와 같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향내 나는 찬양을 드리고 매일 매일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 복록을 누리는 지휘자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 이선우

미국 유니온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작곡과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바이올라 대학원에서 지휘과정을 수학하였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21세기한국교회음악연구협회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선교합창단 총연합회이사장, 한국교회음악협회등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음악출판협회주최 합창세미나인 <씨칭세미나>의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백석예술대와 백석콘서바토리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96년부터 합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이노스합창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사역하며 백석대학교교회 사무장으로, 시온찬양대의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조율(tuning)의 삶과 신앙



최규환 목사

연주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점검할 일은 조율(튜닝)이다. 조율이 안 되면 연주를 할 수도 없고, 해

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연주회를 앞두고 오랜 만에 본당의 피아노를 조율했고, 오보에 주자를 중심으로 전체 단원들이 라(A)음에 자기 음을 맞추는 조율의 절차를 거쳤다. 그만큼 조율은 음악의 기본이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① 조율은 타인을 위한 전적 배려다. 혼자 연주를 한다면 구태여 조율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조율은 화합을 위한 작업이다. 협연을 할 때는 타인의 소리에 나의 소리를 맞추려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섬세하고 민감하게 소리를 내는 이유는 화음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③ 조율은 아름다움을 위한 기술이

다. 서로 다른 파트의 음과 소리가 하나를 이룸은 음악의 신비다. 화음을 이루지 못하는 두 가지의 소리는 선율이 아닌 소음일 뿐이다.

④ 조율은 바쁜 걸음을 내딛기 위한 숨고르기다.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하기 전 거친 숨을 멈추고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⑤ 조율은 불협화음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저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절제하고 약속하여, 정한 소리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조율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공동체를 이뤄야 하고, 공동

체 안에서 꾸려가야 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독주의 삶이 아닌 합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내 결의 사람과 원한된 원치 않은 화음을 이뤄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저마다 독특한 개성은 인정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하나의 소리로 모아져야 하고, 행여 나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며, 빠르게 걷는 삶이 아닌 빠르게 걷는 삶을 위해 자신의 거친 숨을 가라 앉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적인 삶을 통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살아남는다는 사명을 기쁨으로 여겨야 비로소 조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조율은 힘든 작업이기기는 하겠으나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최규환 목사

가락중앙교회 담임목사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및 대학원과 실천신학대학원을 수학하고 수필집 [섬, 삶, 침묵]을 출간했으며 자작곡 음반 [삶 그리고 신앙], 자작곡 부활절 칸타타집 [최후의 만찬]을 발표한 목회자이다.

피아노 연주시 근육이완(Relax)



김준희

피아노를 칠 때 릴렉스(relax, 긴장 완화)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직된 상태로 건반을 치게 되면 소리도 좋지 않을뿐더러 팔 근육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지요.

피아노는 건반에 연결된 나무 해머들이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르테(f)를 표현할 때 완력으로 무조건 센 소리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되며, 탄성이 있는 거친 소리(harsh sound)가 아니라 탄력이 있는 둥글고 짙 찬 소리(full sound)를 내

◆ 김준희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음대 졸업 후 도미하여 시러큐스 대학원에서 피아노 석사를, 피바디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오르간, 하프시코드로 석사 후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백석 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팔에 무리가 온다면 복을 복채로

친 후 힘을 놓아줄 때의 동작을 상상하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한표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아버지 집을 향해, WELOVE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성지 체험 브이로그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 2로 돌아오다

엔게디에서 시작되는 광야의 여정...
이스라엘 절기와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성지 탐험 콘텐츠 <걸어서 이스라엘>이 시즌 2로 돌아왔다. <걸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진상 교수(히브리대 한동 글로벌센터 책임)와 아들 예성 군이 함께 성경의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 성지 체험 브이로그로, 지난해 7월 총 10부작으로 시즌 1이 공개됐다.

시즌 2는 시즌 1이 지역과 장소 중심의 탐방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간다. 대속죄일, 초막절, 수전절 등 성경 속 절기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며, 각 절기에 담긴 의미와 함께 성경을 배경으로 한 역사와 문화까지 폭넓게 다룬다.

프로그램의 또 다른 관련 포인트인 부자(父子)의 케미스트리로 시즌 2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성장한 예성 군과 아버지 유진상 교수가 성경의 무대를 함께 걷고 탐험하며 나누

는 대화는, 말씀이 살아 숨 쉬는 성경 현장을 여행하는 듯한 생동감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성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2000년 전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재와 그곳 사람들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 2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엔게디'를 주제로 다룬다. 엔게디는 '들연소의 샘' 또는 '들연소의 바위'라는 뜻을 지닌 지역으로, 사해 서안 유다 광야의 동쪽 끝, 헤브론에서 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몸을 숨겼던 장소이자,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전을 벌였던 험준한 골짜기로 알려져 있다.

유 교수 부자는 엔게디 국립공원(Ein Gedi National Park)의 척박한 광야를 하이킹하며, 다윗과 사울 사이에 얽힌 증오와 용서의 이야기를 목상한다(사무엘상 24장). 특히 지명과 연관된 성경 이



유진상 교수 부자 사진. ©CGN

아기를 삽화로 함께 소개해, 주제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엔게디 탐방을 마친 유 교수는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윗처럼 소생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 2는 오는 2월 3일(화) 자정 기독 OTT 플랫폼 '풍당'을 통해 첫 공개된다.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에는 CGN TV, 오후 5시에는 CGN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제작진은 “시즌 1보다 재미와 고생은 두 배, 문화 체험은 그 이상으로 확장됐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장지동 기자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3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싱글 ‘성령 하나님 (Live)’ 발매

2022년 6월, 아이자야씩스티원(Isaiah6tyOne)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리메이크해 발표했던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 3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싱글 '성령 하나님 (Live)'을 가지고 돌아왔다.

자작곡으로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던 'MERRY CHRISTMAS'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깨우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회복의 고백’이자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살려 달라는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이라고 설명하는 이번 앨범 '성령 하나님 (Live)'은 2025년 10월 28일 화요모임의 정기예배를 통해 예배자들과 함께 라이브로 녹음되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며, 훈련과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 이 곡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화요모임을 이끄는 워십리더인 염민규와 김광덕, 프로듀서인 김하영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하고, 김광덕 간사가 라이브 레코딩에서 워십리더로 화요모임팀과 함께 녹음했다.

김광덕 간사는 인터뷰를 통해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은 언제나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하고, 훈련과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이 시작되었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앨범인 만큼, 우리의 고백과 사모함이 진솔하게 담기기를 소망하며 준비했다”고 밝혔다.

레코딩 집회를 준비하면서는 “오늘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어떤 환경이든 나 사람, 혹은 단체가 아닌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예배의 분위기나 결과보다도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또한 “자작곡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고백의 찬양으로 사역의 자리에서, 혹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음이 식어버렸다고 느끼는 분들, 열정은 있지만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찬양이 그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별히 예배자와 사역자, 그리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지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고백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다짐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산구 서빙고로 신용산교회(담임 오원석 목사)에서 정기예배를 갖고 있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수영로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65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1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3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지구촌-김우준 30 생명의 말씀 아름(선우 용)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176회)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190회)	00 생명의 양식 정윤(유성택) 30 말씀의 능력(전태식)(568회)	00 생방송 명설교 새벽기도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8회)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대전하빛-백용현 50 생명의 말씀 영광제일-이기용	10 조정민 목사의 담담담 20 사람의 메시지 대치순복음 (한 별) 50 사람의 메시지 원남 (권기용)	30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2(1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57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16회)	00 청주금천교회 주일예배상황 신명민 목사
	8:00	20 내가 매일 기쁘게 박주홍, 하아름 2부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제1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667회)	00 하나님의 음성(151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430회) 마태복음 16장	00 만나 위십 강령삼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BEST(1) 권수경 목사	3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98회)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12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14회)	10 새롬게하소서(11398회) 김향숙 대표 1부	00 믿음의 리액션(22회) 충청북도 음성군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10:00	00 오마이갯생(1회) 20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원유경 목사	00 매일 주와 함께	20 RE바이블(14회)	00 CBS NEWS 10 20 성지가족(23회)	00 내 삶의 행복(193회) 5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5회)
오후	11:00	0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골형성부전증 김예준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람은 강물처럼 30 비전설교 새문안 (이상학)	1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59회) 50 예수동행일기(17회)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5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27회) 이성훈 목사 여덟 번째 5강 언어로 보는 시편 : 손귀를 감각한 나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13회) 50 성지가 좋다 국내편(53회) 강경 3부
	12:00	00 CTS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 군포제일-권태진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십터 풍성한 (김성곤)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13회) 20 [말씀] 이만호 목사(더사랑의교회)(329회)	00 감신대 화요재플(68회) 30 TV강단 필그림(김형석)	20 말씀의 창 은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안양서부-전승환 30 [CTS 믿음의 명작] 내 영혼의 찬양	00 비전설교 중앙성결 (한기재) 30 사람의 메시지 순복음성남 (양병열)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91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90회)	00 올포턴(707회)	30 비전메시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1 [생방송]Calling GOD(2425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3554회) 이낙준 작가	00 GOODTV 특별강준 2025 감사특방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46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새롬게하소서(11052회) 최성중 집사	00 김상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150회) 4 분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708회)
	15:00	4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골형성부전증 김예준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312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430회) 레위기 5장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상황 김다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분당햇불-이재희	0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30 행복한 십터 평택성원(박충권)	0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18회)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13회) 5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119회)	10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2부 5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6회)	00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저녁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50 신앙에세이	00 다큐 더 로드 20 사람의 메시지 총명한(임다윗)	30 [말씀] 박신웅 목사(열바인온누리교회)(283회)	50 영혼의 양식 구세군대한분령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회담터치(6회)
	18:00	00 생명의 말씀 산본양문-정영교 30 부흥 여개인 포항장성교회	00 리바이트 헤리티지 10 행복한 십터 순복음금곡 (김형근) 40 더 깊은 울림 한성 워십	10 THE NEW 하늘빛향기(16회) 50 예수동행집회(10회)	00 TV강단 용인송전(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말씀의 창 홀리씨즈교회 서대천 목사 30 성지가 좋다 국내편(53회) 강경 3부
	19:00	20 더 초초 시즌4(2회)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밋비	50 예수동행집회(10회)	00 이영훈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595회)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령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30 생명의 말씀 송도가나안-김의철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사람의 메시지 순복음진주초대 (이경은) 40 GOODTV 특별기획 광야 속에 숨겨진 생명의 숨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2년 02월 03일 2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 선한목자교회-(58회) 40 너답게-회복프로젝트(7회)	00 CBS비전특강 윤치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_이진제일(이제일)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74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우리 교회는 지금(36회) 50 CTS뉴스	10 GOODTV 특별기획 40 GOODTV NEWS	00 성당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430회) 마태복음 16장 50 살롬 쌀롬(33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칼럼(90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BEST(1) 권수경 목사	0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람은 강물처럼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30 총설: 은혜로군(20회)	00 CBS NEWS 10 20 새롬게하소서(11398회) 김향숙 대표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60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24회) 이성훈 목사 여덟 번째 2강 언어로 보는 시편 : 변치 않는 주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8회)
자막	23:00	10 [CTS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애버리진, 예수의 품에 안기다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매일 주와 함께	10 카일 아이들만의 후회 바꾸는 결혼(7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2월 03일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13회)	10 2024 한소말교회 감사 부흥회(20회) 5 분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16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44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Calling GOD(2425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행복한 십터 청주중앙순복음 (안호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102회)	10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2부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23회)	00 한소말교회 한밤의 기도회(100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1:00	00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원유경 목사 40 원더풀우먼(16회)	10 사람의 메시지 순복음중동 (김경문) 4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60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256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318회) 40 CBS 비전특강 윤치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선교는 지금 2(23회)
	2:00	30 [워킹오더바이블] 성경의 땅(10회) 50 바이블 캘린저	10 사론의 꽃 필 때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205회)	30 TV강단 승리(박규성)	00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BEST(1) 권수경 목사 50 힐링스토리	10 GOODTV 특별강준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Generous Marriage(7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615회)	00 올포턴(244회)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상황 이은상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서임중 목사 30 네 영혼의 찬양	00 힐링스토리 1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 (김학중) 5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629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29회) 고린도전서 23장 50 CBS 교회사(1036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0회) 김상복 목사 3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52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먼훗날 네 여정은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더 안전할거야.”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